

www.HopeSeed.kr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세미나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일시 \_ 2009. 07. 02(목) 오후 2~4시

\*장소 \_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_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국회의원 강명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발행일 \_ 2009년 7월 2일

발행인 \_ 이장로

편집인 \_ 양세진

편 집 \_ 조제호, 김양미, 최홍섭

발행처 \_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70-7019-3761 Fax\_ 02-790-8585

E-mail\_ hopeseed@paran.com

[www.hopeseed.kr](http://www.hopeseed.kr)

\* 본 자료집의 내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내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였습니다.

www.HopeSeed.kr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세미나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일시 \_ 2009. 07. 02(목) 오후 2~4시

\*장소 \_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_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국회의원 강명순



# 진행/ 순서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세미나

---

사 회 : **임 성 빈**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공동대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 **축 사 : 강 명 순** |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빈곤퇴치연구포럼 공동대표)

○ **인사말 : 이 장 로**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리더십학교 교장)

○ 주제발제	
• 한국교육 양극화 현황	10
- 김 성 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방과후학교 현황 및 성과분석	36
- 변 종 임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방과후학교 팀장)	
• 빈곤아동 현실과 지역아동센터 현황	56
- 이 경 립 대표(부스리기사랑나눔회)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축사

##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국회의원 강명순

안녕하십니까.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국회의원 강명순입니다.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을 위해 애쓰시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 함께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IMF와 산업체계 변화로 인한 노동 유연성의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빈곤층의 교육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다시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교육·문화·복지 등의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외, 문화적 소외, 정신적 소외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방임은 탈선, 범죄, 학교생활, 또래수용, 폭력(공격성), 자아 존중감, 부모에 대한 인식 등과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빈곤입니다.

부모가 있지만 방과 후에 방치된 저소득 가정 아이들은 약 100만명으로, 아동 10명 중 1명꼴입니다. 이중에는 ADHD 판정을 받았고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방임되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현재 그 수는 3,100여 개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원실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 1월과 2월 경제위기로 인해서 10,126명의 절대빈곤아동이 정부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53.4%에 이르러 더욱 방치되고 안전의 위협이 높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의 8개 사업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모두 품기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경제·문화·정신적으로 방임되고 있는 절대빈곤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고, 더욱 많은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정책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7. 2

국회의원 강명순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세미나를 시작하며

KDI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취학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으며, 돈 없는 집과 돈 있는 집 사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집 아이들은 대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있어도 방과 후에 방치된 취약계층 가정 아이들은 약 100만명으로,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복지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절반도 넘는 아이들이 신체적·심리적·문화적·교육적으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서는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외면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교육봉사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는 교육양극화 현실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활발하게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십년 동안 빈곤아동들과 함께 현장전문가로, 이제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이번 세미나를 기꺼이 공동주최해주신 강명순 국회의원님과, 세미나를 위해 귀한 지혜 나눔을 해주실 세 분의 발제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9년 7월 2일**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이사장 이장로**

**공동대표 김형국 이장로 임성빈 전구훈 정병오 한정화**

**운영본부장 양세진**



# 한국교육 양극화 현황

김 성 천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I 서론

가끔씩 기차를 타면서 KTX가 지나갈 때 새마을호가, 새마을호가 지나갈 때 무궁화호가 기다려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 속도의 차이는 결국 돈을 얼마나 많이 지불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 상황은 KTX와 지하철 1호선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 1호선은 도무지 KTX를 쫓아갈 수 없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의 교육상황이 그런 것 같다.

공교육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그 어떤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도 함께 어우러지고 녹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용광로 자체에 급이 존재한다. 이른바 수월성, 경쟁 교육이라는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사회 융합과 통합의 기능이 교육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공공성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양극화에 사교육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 사교육이 벌써 공교육의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의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교육은커녕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며, 학비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해외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해외 대학을 목표로 전혀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공공성은 공교육이 가진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개인이 처한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며, 국가의 지원 체계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육을 시장에게 맡기거나 개인이나 가정의 능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에 들어온 이상 누구라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질 높게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무성이 국가와 학교, 교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이나 교육 환경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철저한 지원을 의미한다. 그것은 특정 지역에 있는 학교만의 특혜를 배제하는 것이며,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 환경을 갖추어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때 모든 학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그러다보면 예산과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재정적 지원의 과정 역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이라든지 관리자의 인맥 등이 암암리에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자칫 잘사는 지역의 학교는 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그

렇지 않은 학교는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양극화 현상이 자칫 재정지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 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때 더욱 잘 보장된다. 그러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교에 우선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교육 양극화라든지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교육 복지적 체제를 갖추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 중심의 관점으로는 잘 살고 공부 잘 하는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공공성에는 사교육에서 해결되고 있는 많은 교육적 욕구를 공교육 체제 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지만, 특정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부족하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경우, 훗날이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 학습부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학습 부진에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는 개인의 몫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사교육 수요가 팽창하게 만든 요인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것은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입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의 자체적 역량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돌봄의 미학이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공공성은 교육 목표에도 반영된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몇 십조에 가까운 교육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배출된 학생들은 공공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입신양명 수준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공공적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며, 이타적 가치와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 기부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학생, 사회 기초 윤리와 직업적 윤리를 내면화한 학생,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냄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존의 지식 위주의 수업을 넘어서서 보다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구성해야하며, 공공성에 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이 기획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교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정립되기 이전에 시장 중심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상당한 몫이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양극화 현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갈등과 대립, 불안 요소가 상당히 심화될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사회 통합에 상당한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개개인 역시 제대로 된 배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치지 못한 채 스스로 자학하면서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력 자체가 상실됨을 의미한다. 지금 그러한 좌절의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오랫동안 누적될 때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분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기회의 형식적인 평등을 만들어 냈다. 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객관적인 수치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기회 제공의 평등을 넘어서 과정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형식적인 기회 균등 제도가 존재할 뿐, 교육을 통한 계층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1) 통계청 자료 < 취학률과 진학률 : 1998~2008년 >

이번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급식과 슬럼화된 학교를 공모제 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해보겠다는 혁신학교가 그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도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좌초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공약은 일종의 양극화를 극복해보겠다는 의지였는데, 시작도 못한 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배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동안 한쪽에서는 구멍이 나고 있다. 불꽃놀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사고요 특목고이다. 반면, 농어촌 학교, 실업계고,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주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버렸으니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단히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어찌 경기도만의 문제이겠는가?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을 다각도로 규명해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양극화 현상 탐색

교육 양극화는 곧 경제적 변수가 독립변수가 되고 교육 관련 변인이 종속변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 변수에 의해서 교육 변수가 영향을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그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중간적인 지점이 없어지고, 양극단에 사람들이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한 사람의 교육 내용과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는 곧 교육 격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중간 간극을 메우기 힘든 상황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양극화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① 지역 ② 소득수준 ③ 부모의 학력 ④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서 학업성취도, 특정 대학 입학, 사교육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손준중, 2006). 교육 양극화는 결국 특정 학교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 교육과정의 질적 차별화, 대학입시에서의 특혜 형태로 진행된다. 각 과정의 핵심 고리에는 물론 사교육이 매개변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연도	취학률 <sup>1)</sup>				진학률 <sup>3)</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관 <sup>2)</sup>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교) <sup>4)</sup>
1998	97.7	94.1	88.7	46.8	99.9	99.5	64.1
2000	97.2	95.0	89.4	50.2	99.9 <sup>5)</sup>	99.6	68.0
2006	98.8	96.2	93.1	63.5	99.9 <sup>5)</sup>	99.7	82.1
2007	99.3	96.0	91.3	66.1	99.9 <sup>5)</sup>	99.6	82.8
2008	99.0	93.2	90.0	67.2	99.9 <sup>5)</sup>	99.7	83.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취학률 = (취학 적령학생수 / 취학 적령인구수) \* 100

2)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가 포함됨

3)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4)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였음

## 1. 학력과 학벌에 의한 격차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소위 '격차'의 문제에 집중해왔다. 예컨대, 학력과 임금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46만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 원 증가했다. 반면,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8천 원에서 233만5천 원으로 7만7천 원 늘었다. 고졸 가구주의 증가액이 대졸 가구주의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대졸과 고졸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는 2007년 117만 3천 원에서 2008년 130만6천만 원으로 더 커졌다. 이 격차는 2003년 82만1천 원에서 2004년 91만3천 원, 2005년 94만7천 원, 2006년 107만1천 원 등으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2003년과 비교하면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33.5% 늘었지만, 고졸 가구주는 22.7%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근로소득은 2003년 1.43배에서 2004년 1.46배, 2006년 1.50배, 2007년 1.52배, 2008년 1.56배로 꾸준히 높아졌다(연합뉴스, 2009년 4월 13일).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차별을 넘어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해마다 그러한 격차가 점차 심해진다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 간에서도 수평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수직적 차별을 학력주의라고 한다면,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끼리 나타난 차별을 학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장수명(2005)은 대학성적 순위와 월 임금 간 차이를 밝혀냈다. 이 자료는 학력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학벌에 의한 임금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노동시장의 차별화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대학 입학성적 백분위 순위 범주별 평균성과 월임금 (단위: 만원)

구분	관측치수	평균백분위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94년 대학성적순위 101이상	492	72.48	1.60	145.35	80.24
94년 대학성적순위 51-100	819	80.82	2.77	152.06	70.29
94년 대학성적순위 31-50	419	86.50	1.50	160.33	75.88
94년 대학성적순위 11-30	711	92.84	1.75	173.18	97.30
94년 대학성적순위 6-10	202	96.20	.29	177.81	82.98
94년 대학성적순위 1-5	263	98.00	.89	232.91	115.84

출처: 장수명(2005), 연구물 인용

이러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임금 차이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만이 대접받을 수 있었다. 양반으로 행세하려면 최소한 '생원'과 '진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소과시험이나 관직자로 진출할 수 있는 대과에 합격해야만 했다. 적어도 3대 내에 과거 합격자가 나와야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개인을 넘어 가문의 대리전이요 총력전이었다. 물론 관직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학문과 자연을 벗 삼던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류는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제도적으로 평민들도 과거시험을 볼 수는 있었지만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무튼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일종의 양반 공인서를 취득한 셈이 되고, 결국 많은 사회적·정치적·경

제적 권리를 독점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초집'이라고 해서 일종의 족집게 예상문제집이 돌았다고 한다. 오늘날 사교육의 비대화와 공교육 부실화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관학에 비해 사학이 융성하여 대책 마련에 애쓰기도 하였다. 또한, 각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시험 제도를 고치기 위해 피흘려 싸우기도 했다. 이 당시에도 돈주고 관직을 사거나 대리시험과 같은 과거 시험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선시대가 거의 양반들만의 리그였다면, 해방 이후 모든 국민이 학벌주의와 학력주의 경쟁에 나선 것이다. 그 경쟁에 나서게 만든 것은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부모들이 온 몸으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해방 이후 어느 정도 계층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나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그런 순환 구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입시를 둘러싼 가족간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제자본, 문화자본<sup>2)</sup>, 사회자본<sup>3)</sup>이 총동원된다. 자식들은 부모의 후원에 힘입어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2.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관련 지출액의 차이

사회격차 내지는 양극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는 가계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가구의 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대일(2004)은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에 불과하고, 소비 기준 하위 10%의 계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한달 10만원 수준인데 반해 상위 10%의 계층은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빈곤층의 낮은 교육비 지출은 빈곤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근(2005)의 연구는 학력수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15만원 가량을 사교육비로 쓴다면 대졸 아버지는 44만원을 쓴다. 200만원 이하 가구는 14만원을 사교육비에 쓴다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정은 64만원을 쓴다. 상위 정신노동직이 41만원을 쓴다면 하위 육체 노동직은 22만원을 쓴다.

2)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여유는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책을 많이 사주거나, 연극을 보게 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음악회에도 데려갈 수 있다. 부모님이 어학 연수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인데,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학교 문화와 상당한 괴리를 느끼게 된다. 이른바 문화 실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사회자본은 쉽게 말하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강남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팀을 짜서 입시체제에 대응을 한다든지, 고도의 입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모습도 일종의 사회자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좋은대학에 가려고 하느냐는 결국 인맥을 형성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인맥은 일종의 사회자본인 것이다.

<표 7> 계층관련 변수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평균차이 검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사후검증
		N	M	SD	F	
(A) 아버지의 학력 수준	(1) 중졸 이하	190	15.84	17.70	26.903***	(1)~(2)***
	(2) 고졸	658	28.67	29.71		(1)~(3)***
	(3) 2-3년제 대학 졸	77	40.69	35.34		(1)~(4)***
	(4) 4년제 대학 졸	302	44.63	43.90		(1)~(5)***
	(5) 대학원(석사·박사)	76	45.82	51.39		(2)~(4)***
	전 체	1,303	32.21	35.46		(2)~(5)**
(B) 가구의 월 평균 소득수준	(1) 200만원 이하	306	14.77	16.96	97.141***	(1)~(2)***
	(2) 201~350만원	546	26.81	25.06		(1)~(3)***
	(3) 351~500만원	308	44.28	37.89		(1)~(4)***
	(4) 500만원 초과	143	64.18	57.33		(2)~(3)***
	전 체	1,303	32.21	35.46		(2)~(4)*** (3)~(4)***
(C) 남성 보호자의 직업	(1) 상위 정신노동직	104	41.45	35.07	23.860	(1)~(4)*** (2)~(4)*** (3)~(4)***
	(2) 하위 정신노동직	418	39.67	41.87		
	(3) 상위 육체노동직	265	35.94	39.44		
	(4) 하위 육체노동직	516	22.40	23.46		
	전 체	1,303	32.21	35.46		

\*\*\*p<.001, \*\*p<.01, \*p<.05

출처: 김경근(2005), p 14 인용

김경근(2005)은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의 경우, 287.63점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56점을 취득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균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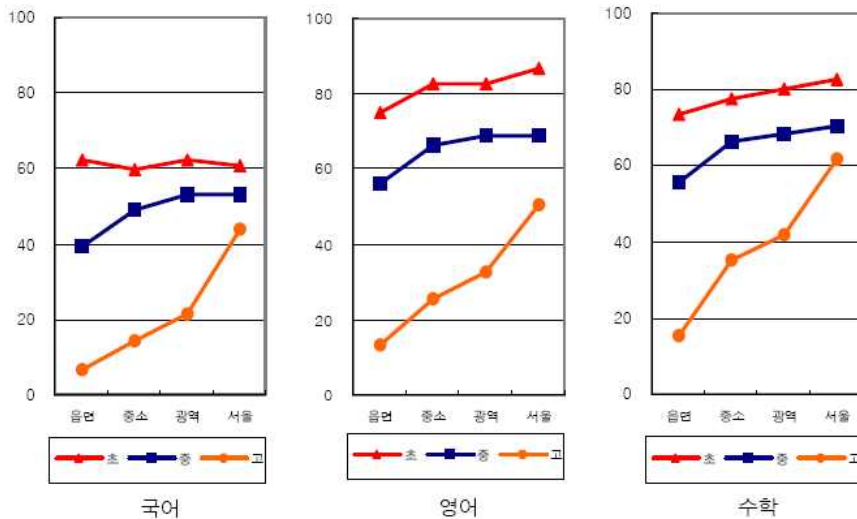
소득수준	수학능력시험 점수(언어·수리·외국어 영역)				사후검증
	N	M	SD	F	
(1) 200만원 이하	306	287.63	44.61	25.288***	(1)~(3)***
(2) 201~350만원	546	293.14	42.48		(1)~(4)***
(3) 351~500만원	308	310.20	44.93		(2)~(3)***
(4) 500만원 초과	143	317.58	45.23		(2)~(4)***
전 체	1,303	298.56	45.09		

\*\*\*p<.001, \*\*p<.01, \*p<.05

출처: 김경근(2005), p 16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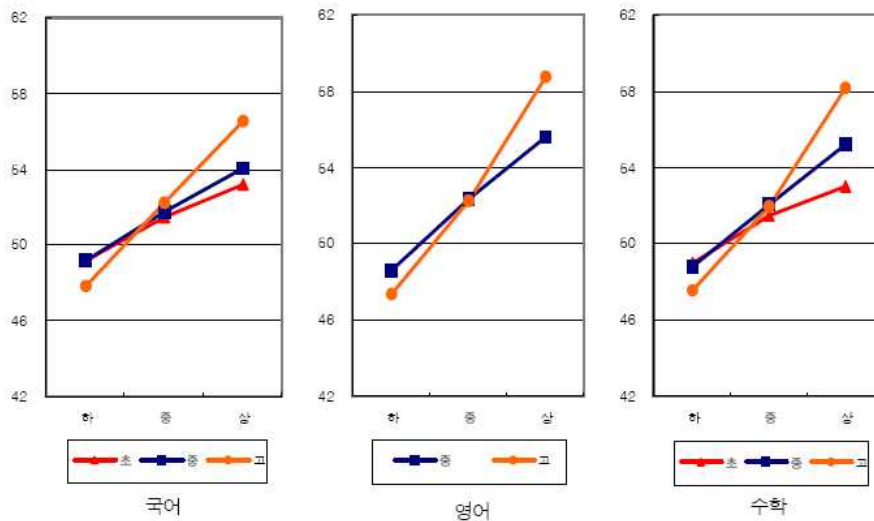
김경근(2005)의 연구는 지역, 가계소득,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남성보호자의 직업과 학업성취도(수학 능력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서, 연구결과, 대도시 > 중도도시·읍면, 부의 학력수준(중졸이상 > 중졸이하, 4년제 대학 이상 > 고졸이하, 대학원이상 > 2·3년제 대학, 대학원이상 > 4년제 대학), 소득수준(월평균 351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351만원 이상 > 350만원 이하), 남성보호자의 직업(상위 정신노동직 > 다른 직업)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방란·김성식(2006)은 중학교 197개교 14,252명을, 고등학교 207개교 11,75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실태라든지 가정 배경과 학교 교육의 영향력을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교육지원, 학생의 학교 경험, 그리고 학업 성취 수준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며, 부모의 교직지원 활동, 과외 참여 비율, 과외비 지출 수준 등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아울러, 교육격차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심화되며, 교육 격차가 부분적으로 양극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배경은 국어, 영어, 수학과목과 같은 인지적 성취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생활 만족도와 같은 비인지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가정배경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상급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는 과외 참여 비율이 지역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읍면, 중소, 광역, 서울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 지위에 따른 과외 참여 비율 역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55)는 아버지의 직업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과 학습 성취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상위직일 수록 자녀 학업성취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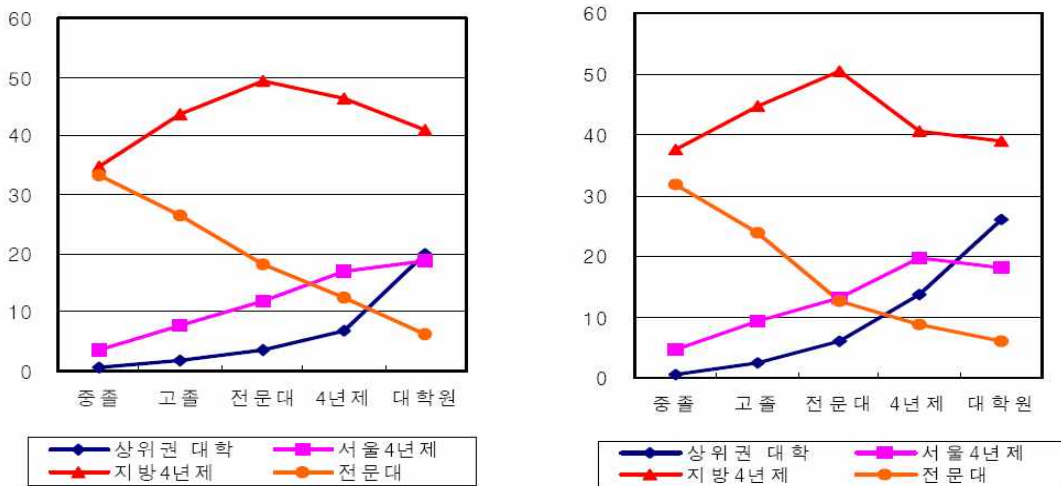
[그림 III-12] 지역규모에 따른 과외 참여 비율





[그림 III-55] 아버지 직업지위에 따른 교과 학습 성취

(그림 IV-9)는 아버지 교육 수준에 따른 대학교 진학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대학진학 유형에 의미있는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전문대와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진학 대학 유형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9]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대학교 진학 유형 [그림 IV-10]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대학교 진학 유형

출처: 류방란, 김성식(2006)

<표III-3>은 류방란·김성식(2006)이 학생과 학교 배경과 영어 성적의 차이를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것이다. 여러 변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학업 성취에 사회 경제적 지위, 가정 지원,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평균 가정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 성취 자체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3> 학생과 학교 배경에 따른 영어 성적의 차이**

변인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절편				49.600	0.534	***	49.268	0.852	***
<학생수준>									
여학생				2.566	0.213	***	1.167	0.217	***
SES				3.191	0.135	***	1.270	0.105	***
가정지원				2.374	0.135	***	0.820	0.109	***
<학교수준>									
광역시				1.434	0.659	*	1.989	0.930	*
중소도시				1.229	0.627	†	1.655	0.914	†
읍면지역				0.951	0.651		0.058	1.171	
평균 SES				5.363	0.822	***	3.732	1.242	**
평균 가정지원				4.768	1.765	**	8.438	1.989	***
실업계							-6.021	0.921	***
특목고							5.769	1.415	***
무선효과									
학생수준					76.085	(12.4)		35.927	(4.0)
학교수준					4.338	(62.6)		13.258	(79.1)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 : 기초모형 대비 설명된 변량 비율

출처: 류방란 김성식(2006)

### 3. 사교육의 양극화 경향

부모의 후원 구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은 나름대로 패턴화된 교육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사립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과학고나 외고, 예고(특목고), 조기 유학 및 해외 유학 등 일련의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한 패턴화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교육비의 개입이다. 2008 통계청 자료는 전국 학생들의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 자체가 상당히 보편화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75.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월평균 23만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표3-1>은 보여주고 있다.

**<표3-1>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7년	2008년	증 감
<b>전 체</b>	22.2	23.3	5.0	77.0	75.1	-1.9
일반교과	17.8	18.8	5.6	68.4	66.4	-2.0
국 어	2.2	2.3	4.5	39.3	36.1	-3.2
영 어	6.8	7.6	11.8	55.6	55.6	0.0
수 학	5.7	6.2	8.8	58.6	56.5	-2.1
기 타	3.0	2.7	-10.0	38.6	34.1	-4.5
예체능, 취미교양	4.3	4.4	2.3	37.0	35.3	-1.7

출처: 통계청 자료

<표3-2>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정리한 것이다. 100만원 미만이 가정에서 5만 4천을 쓴다면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7만 4천원을 쓰고 있었다. 참여율 역시 100만원 미만이 34.3%라면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1.8%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학생들은 상당수의 또래들이 학원을 다닐 때, 10명중 7명 가량은 학원을 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3-2>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p)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 %p)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7년	2008년	증 감
<b>전 체</b>	22.2	23.3	5.0	77.0	75.1	-1.9
100만원 미만	5.3	5.4	1.9	36.9	34.3	-2.6
100 ~ 200 미만	10.7	10.8	0.9	59.7	55.3	-4.4
200 ~ 300 미만	17.7	17.7	0.0	77.0	73.7	-3.3
300 ~ 400 미만	24.1	24.5	1.7	84.4	82.2	-2.2
400 ~ 500 미만	30.3	30.6	1.0	89.2	87.2	-2.0
500 ~ 600 미만	34.4	35.6	3.5	90.5	89.7	-0.8
600 ~ 700 미만	38.8	40.2	3.6	92.7	90.5	-2.2
700만원 이상	46.8	47.4	1.3	93.5	91.8	-1.7

출처: 통계청 자료

<표3-3>은 부모의 교육정도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아버지의 교육정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원졸 87.3%, 대졸 85.7%, 고졸 69.7%, 중졸 이하 44.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원졸 88.4%, 대졸 87.9%, 고졸 72.7%, 중졸 이하 4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3-3> 부모의 교육정도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
<b>아 버 지</b>	<b>사교육비</b>	2007년	8.9	17.1	28.5	36.4
		2008년	9.3	18.1	29.8	36.9
	<b>참 여 율</b>	2007년	46.1	71.7	87.6	90.5
		2008년	44.8	69.7	85.7	87.3
<b>어 머 니</b>	<b>사교육비</b>	2007년	10.0	19.3	30.6	39.6
		2008년	9.8	20.1	32.1	39.8
	<b>참 여 율</b>	2007년	47.9	75.0	89.5	91.6
		2008년	45.5	72.7	87.9	88.4

출처: 통계청 자료

지금까지 제시한 통계청 자료는 전국 평균값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보다 지나치게 사교육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지적이 되곤 한다. 서울에서 몇 군데 표본으로 해본 결과, 통계청 자료보다 훨씬 높게 나온 적도 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비교적 사교육이 높으며 외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목동과 강남, 평촌(과천), 분당, 중계 지역의 초등학교 2개, 중등학교 2개를 각각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각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강북 지역의 사립초등학교 2개를 일반 공립 초등학교와 비교할 목적으로 선정하여 마찬가지로 6학년 각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등학교 10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9. 4. 6 - 4. 27 일이었으며, 약 2주간 실시하였다.

<표3-4>에서 나타난 결과는 통계청 조사자료(2008)의 일반교과 사교육비 24만 2천원(초등학생)과 23만 3천원(중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설문 조사가 대체적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008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초등학생 42만 7천원, 중학생 5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본 설문 조사 대상 학생들은 2008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월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초등학생과 중등학생 사교육비**

	초등중등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한달사교육비	초등	292	601,157.53	334,163.503	19,555.440
	중등	383	601,971.28	360,786.795	18,435.344

한편, 이 학생들 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로 집단을 나누어서 한달 사교육비를 조사해보았다. 외국어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월평균 71만원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조사결과임을 감안할 때, 2학기에 다시 조사하면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 외고 진학 희망 학생과 비희망 학생간 사교육비 차이 비교**

	외고희망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한달 사교육비	희망	256	710,468.75	338,262.537	21,141.409
	비희망	397	534,365.24	340,092.857	17,068.771

이 조사에서는 23.7%의 학생이 해외 연수 및 조기 유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은 26.8%, 중학생은 20.6%가 해외 연수 및 조기 유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외 연수 및 조기 유학 기간 동안에 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38.6%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사립초등학교에서는 34.9%, 공립초등학교에서는 23%의 학생이 해외 연수나 조기 유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외 연수 및 조기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6.8%, 대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6.9%였으나, 중졸이하는 1.7%, 고졸은 10.4%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소재 외고 입학생의 34.5%가 해외 연수나 조기 유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국제중의 경우, 60.6%가 조기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학교의 계층 간 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외고와 일반고, 실업계고 학부모의 직업 분포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외고는 비교적 상당한 균질 집단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위 직 분포가 외고(44.77%) > 일반고(13.11%) > 실업계(3.68%)로 나타나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 비율이 외고(64.67%) > 일반고(49.05%) > 실업계고(31.52%)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4-1> 학교간 부모의 직업 분포

구	학교명	아버지 직업 분포					어머니 직업 분포				
		상위직	중위직	하위직	무직	기타	상위직	중위직	전업주부	하위직	기타
강 동 구	한영외고	51.12%	36.59%	10.89%	0.00%	1.40%	9.22%	20.39%	65.92%	4.19%	0.28%
	A일반고	15.22%	47.10%	23.19%	0.72%	13.77%	5.60%	13.84%	59.54%	13.84%	7.18%
	B실업계고	6.28%	29.32%	32.98%	8.38%	23.04%	3.14%	9.95%	31.41%	44.50%	9.95%
중 구	외고	53.49%	33.02%	5.12%	0.93%	1.86%	12.09%	22.33%	59.53%	3.72%	1.86%
	C일반고	15.56%	35.27%	36.93%	5.19%	1.24%	4.55%	14.05%	44.21%	28.31%	7.64%
	D실업계고	2.58%	28.68%	47.55%	12.40%	8.79%	1.03%	12.14%	36.95%	30.49%	8.01%
전 체	학교분류	상위직	중위직	하위직	무직	기타	상위직	중위직	전업주부	하위직	기타
	외고	<b>44.77%</b>	40.21%	<b>11.06%</b>	<b>0.50%</b>	<b>2.71%</b>	<b>8.71%</b>	18.95%	<b>64.67%</b>	<b>5.28%</b>	<b>2.12%</b>
	일반고	<b>13.11%</b>	42.81%	<b>28.40%</b>	<b>2.98%</b>	<b>11.71%</b>	<b>3.47%</b>	16.27%	<b>49.05%</b>	<b>22.22%</b>	<b>7.66%</b>
	실업계고	<b>3.68%</b>	34.05%	<b>32.34%</b>	<b>7.80%</b>	<b>22.13%</b>	<b>1.97%</b>	12.87%	<b>31.52%</b>	<b>32.91%</b>	<b>16.61%</b>

<표4-3> 민족사관고 직업분포

민족사관고	학년	학생수	전문직	경영관리직	교직	사무직	숙련기술직	판매서비스업	소규모농축수산업	비숙련노동	전업주부	정년퇴직	무직실업자	기타
수	1학년	153	55	81	1	11		2						3
	2학년	160	61	77	5	11	1	1					1	3
	3학년	147	48	82	1	10	1	2					1	2
	계	460	164	240	7	32	2	5					2	8
비율	1학년	100%	35.95%	52.94%	0.65%	7.19%	0.00%	1.31%	0.00%	0.00%	0.00%	0.00%	0.00%	1.96%
	2학년	100%	38.13%	48.13%	3.13%	6.88%	0.63%	0.63%	0.00%	0.00%	0.00%	0.00%	0.63%	1.88%
	3학년	100%	32.65%	55.78%	0.68%	6.80%	0.68%	1.36%	0.00%	0.00%	0.00%	0.00%	0.68%	1.36%
	계	100%	35.65%	52.17%	1.52%	6.96%	0.43%	1.09%	0.00%	0.00%	0.00%	0.00%	0.43%	1.74%
비율	학년		상위직비율		중위직비율		하위직비율 <sub>ij</sub>			무직비율		기타		
	1학년	100%	<b>88.89%</b>		7.84%		1.31%			0.00%		1.96%		
	2학년	100%	<b>86.25%</b>		10.63%		0.63%			0.63%		1.88%		
	3학년	100%	<b>88.44%</b>		8.16%		1.36%			0.68%		1.36%		
	계	100%	<b>87.83%</b>		8.91% <sub>ij</sub>		1.09% <sub>ij</sub>			0.43% <sub>ij</sub>		1.74%		

출처: 권영길 의원실

민족사관고의 경우, 상위직 비율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고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임을 보여 준다. 반면, 하위직 비율은 매우 적었다. 그런 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부모의 계층 분포에 따라서 자녀의 학교군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는 진입 자체가 매우 힘들다. 정상적인 공교육을 통해서도 진입이 불가능하다. 별도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기유학 내지는 어학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외고 영어듣기는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외고나 특목고는 해외 대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을 배려한 형태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SAT, AP, 토플, 봉사활동 등에 역점을 두는 학생들이 있고,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외고가 나타나고 있다. 외고 내에서도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간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대학에서도 노골적으로 특목고를 우대하는 전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반면, 사회배려자 전형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인터뷰 1-1>는 외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한 것이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외고에 자녀를 입학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초등학교때 조기유학을 다녀왔고, 다녀와서 과학고나 민사고를 생각했으나 수학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외고로 자녀를 보낸 과정이 나타나 있다. 결국 과학고와 외고 여부의 핵심적인 결정은 어학에 관한 재능과 흥미라기보다는 수학 실력의 탁월성 여부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인터뷰 1-1>

연구자: 좋은 학교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이 자녀가 입학할 하셨네요.

학부모: 들어가기 전엔 어렵지만, 가서는 아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연구자: 영철이(가명)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했나요?

학부모: 영철이요? 영어는 잘하지 않았고, 캐나다 1년 갔다 오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지. 하하. 엘리베이터 탄거 같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조금 수월했는데 영어 못하는 편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워낙 요즘에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연구자: 민사고도 같이 준비했다면서요.

학부모: 민사고 준비하다 보니까 영어나 수학이 탁월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는 꿈도 못꾸고. 모를 때는 꿈꾸고 알고나서는 '아 아니구나' 외고가자 그랬지.

연구자: 영철이도 외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학부모: 예, 애들은 잘 모르고 그냥 가고 싶어하고, 공부는 안하니까 "너 그럼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아 니야 나 갈꺼야' 그러고 그러면서 많이 부딪혔지

연구자: 왜 외고 보내셨어요? 과학고, 영재고, 민사고 워낙 이런학교들이 많은데..

학부모: 치, 자기 수준에 맞는 게 고정도. 과고 같은데는 과학이 탁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딘가 목표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똑같이 중3을 보내도 틀리지 않을까 붙든 떨어지든 그런것도 봐서-

연구자: 학교별로 단계가 나눠져 있나요?

학부모: 그렇죠 그렇죠. 과학고, 민사고, 영재고, 외교. 그나마 외교가 뽑는 인원수가 많고 그러니까. 학교가 많고 선택의 폭이 있고. 특별히 이과 성향이 있지도 않고 영어는 조금 되는거 같고 수학도 그냥 썩썩. 되는 거 같으니까 그 정도니까

연구자: 과학 수학 탁월한 애들 말고는 목표가 민사고, 외교 이래요? 국제고는?

학부모: 잘 모르고. 처음 생길 때 었나? 그러니까는 특히 알게 될 때, 선배들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학원에서 설명회에서 뭐 잘 해야 가는지 모르고. 특히 강남 애들은 내신이 좋지 않은데..강북에는 만약에 탁월한 애가 있으면 개가 전교 1등을 계속해서 내신이 좋은데. 국제고나 그런데는 내신을 전적으로 많이 보는데 그러면 강남 애들은 못갈 확률이 많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실적도 없고 뭔가 한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연구자: 본격적인 준비는 언제부터?

학부모: 중2부터 겨울방학. 1년. 더 늦게 한 애들도 많더라고요. 훨씬 늦게 시작한 애들도 많고. 애는 3학년 되기 전 2월달 1월달부터 한건데.

연구자: 캐나다는 언제?

학부모: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때 가서 6학년 2학기 때. 딱 1년

연구자: 요즘 초등학생들도 외교 준비하는 애들이 있던데..

학부모: 아 맞아. 요즘에는 6학년 때부터 하지. 그때는 우리는 몰랐고. 요즘 추세가 점점 내려가서 5학년때, 6학년때 민사고 준비해야 한다는데.. 그때는 나는 몰랐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나는 늦게 알았나. 몰라 근데 확실히 추세는 점점 내려가는 그거는 있어요.

연구자: 캐나다는 왜 가시게 된거죠?

학부모: 남편이 밀어서. 자기가 못하니까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자기가 사회 생활하다 보니까 되게 필요하다고. 공부와 상관없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같이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갔을 때 틀리니까. 자기가 콤플렉스였나봐 자기가 못하니까. 그랬나봐. 보통은 여자들이 막 밀어서 간다는데 나는 남편이 밀어서 할 수 없이 애들 데리고..

연구자: 학생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외교에 가려고 할까요? 민사고 과학고보다도 가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경쟁률도 높고. 왜 그럴까요?

학부모: 나와 같은 이유인가? 과고보다 가기가 수월하고. 반에서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말로는 내신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작 보면 내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점을 두고 애들을 밀어부치고 애들도 그거에 대해 꿈을 갖고.

연구자: 왜 외교를 희망하는 건가요?

학부모: 나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그룹에 있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내가 처음에 생각한게.. 버스에서 중고등학교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학교 수업이 너무 엉망인거야. 고등학생들이 얘기 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좋은 선생님 이 1명 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흉을 보고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가서 수업을 받는 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영철에게 얘기를 했지 보통 애들은 그렇다더라 그렇게 3년 보내지 말고 기왕이면 그러면서 좋은데 가서 좋은 애들하고 양질의 수업을 듣는 게 좋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내가 조금 떠났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양질의 수업은 아닌거 같더라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관으로 교육과열지구 초중고 학생 1,380명을 대상으로 외고 입학 희망 동기를 조사한 결과, 외고 희망하는 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44.4%(초 41.9%, 중 48%),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19.2%(초 23.3% 중 13.6%), '우수학생들이 모여 학교 분위가 좋을 것 같아서' 14.1%(초 11.5%, 중 17.7%), '교육의 질이 높을 것 같아서' 13.2%(초 11.1%, 중 1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위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외고 진학에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중학교는 1969년에 개교한 나름대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이다. 한때는 18학급까지 학년을 구성할 정도로 번창하였다. 그러나 신도시가 건설되고,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역설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도시 전체가 발전할수록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D중학교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버렸고, 지역 발전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D중학교 역시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D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었다. 당연히 경제적, 가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고, 적절한 부모의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급식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전교생의 절반 규모를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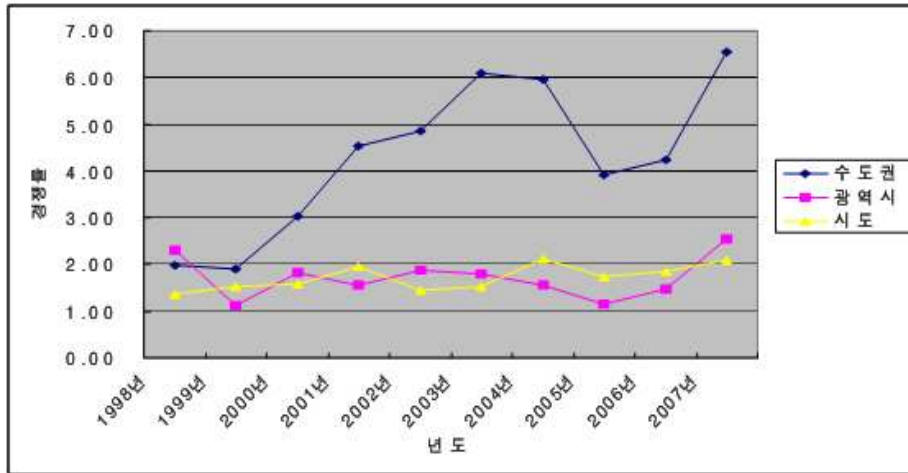
*우리 학교 아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한번은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한 아이가 아침에 생라면을 가게 앞에서 썰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아침 안먹었니?"라고 묻자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따뜻한 밥 한그릇 해결이 쉽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합니다. 어떤 학생은 할머니가 오셔서 손주 자퇴를 시켜 달라고 하더군요. 사연을 물어보니, 중학교 자퇴를 해야 군대를 안가게 되고, 그래야 집안의 생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 사연을 들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김합리 교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교라는 평판이 있었다. 어쩌다 공부를 잘하거나, 잘사는 집 아이들이 D중학교로 배정을 받았다고 해도 대부분은 3월 초에 다른 학교로 미련 없이 전학을 가버리고 만다. 학교 일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학습 차원에서 부진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근무를 하면서 교사들은 상당한 피로를 느끼게 된다. 학교 폭력과 흡연, 가출, 반항 등의 문제가 교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나면 쉽게 지치고 만다. 결국, 1년 만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D중학교는 서울과 생활권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러한 장점이 교사들을 붙들어 주지는 못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 학교에 오는 교장들이 주로 퇴임을 1-2년 앞두고 온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세워질 리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학교의 분위기는 침체되었다. D중학교는 일반 대도시 학교에 비해서 6학급의 작은 학교라는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적, 지역적 침체 상황과 일부 학생 개개인이 갖는 폭력과 반항, 흡연, 학습부진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가리어져 그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 5. 특목고를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대학<sup>4)</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목고는 우리 사회에서 중상류층 정도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서울의 상위권대학들은 노골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는 해마다 외고 입학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 입학 경쟁률이 올라가는가? 그것은 대학교 입시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도별(1998~2007) 외고 입학 경쟁률

각 대학별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입학전형을 지원 자격과 학생부 반영 두 가지의 척도를 통해 정리하여 [표 8]에 나타내었다. 세계선도인재전형, 글로벌리더전형, 알바트로스국제화전형, 국제학부전형,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을 통해 외고 재학생이 유리한 지원 자격을 제시하거나 이들 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요소와 정시 또는 수시 학업우수자 전형 등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전형요소들이 있었다. 공인 외국어 성적 제출 또는 외국어 전문 교과 58단위 이상 이수 등 외고 졸업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원 자격을 주어지거나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외고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리한 전형(●●)을 학생부를 10% 이내로 반영하고 논술 등을 통해 선발하는 전형, 마지막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 내외이며 나머지 영역을 수능 점수 등으로 반영하는 전형을 비교적 외고 우대 정도가 약한 전형(●)으로 분류하였다. 외고 출신에게 우대 정도가 가장 큰 전형(●●●)이 고대, 연대, 한양대는 3개, 서강대, 이화여대 2개, 성균관대가 1개였으며 외고 출신 우대정도가 비교적 작은(●●) 전형은 고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각각 1개가 있었다. 비교적 외고 우대 전형의 정도가 약한 수시 전형(●)은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에 각각 1개씩 있었다.

4) 이하 내용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외고 대학 특혜 발제 자료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표 8> 외고 졸업자들에게 유리한 입학전형이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학교	전형구분		선발인원 (전체정원%)	외고출신에게 유리한 정도	실제 유리한 전형 비율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1211	●	11.7%
	계		1211(38.9)		
고려대	수시	세계선도인재전형	190	●●●	51.9%
		수시 2차 일반	640	●●	
		국제학부전형	50	●●●	
	정시	일반전형 중 우선선발	1096	●●●	
계			1,976(52.3)		
연세대	수시	일반우수자전형	372	●	50.5%
		글로벌리더전형	500	●●●	
		언더우드국제대학전형	95	●●●	
	정시	일반전형 중 우선선발	1054	●●●	
계			3,944(57.7)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300	●	32.2%
		국제학부	70	●●●	
		스크랜튼학부 I	30	●●	
	정시	일반전형 중 우선선발	819	●●●	
계			1219(39.2)		
서강대	수시	알바트로스 전형	82	●●●	30.0%
	정시	일반전형 중 우선선발	351	●●●	
		일반전형	234	●	
	계			667(39.7)	
한양대	수시	국제학부전형	45	●●●	46.0%
		외국어우수자전형	40	●●●	
		글로벌한양전형	120	●●	
		일반우수자전형	614	●	
	정시	일반전형	1887	●●●	
계			2706(55.6)		
성균관대	수시	2차일반전형	606	●●	38.0%
	정시	일반전형 중 우선선발	945	●●●	
	계		734(43.1)		

●●●-외고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원자격 또는 수능 100% 또는 학생부를 제외한 서류 100%

●●-학생부 10% 반영 또는 논술(학생부 반영하지 않음)

●-학생부 20%내외 반영

※ 실제 외고생에게 유리한 입시 전형안이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표

학교	실제 유리한 전형 비율
서울대	11.7%
고려대	51.9%
연세대	50.5%
이화여대	32.2%
서강대	30.0%
한양대	46.0%
성균관대	38.0%

주요 7개 대학의 2010학년도 대입 전형을 수시와 정시의 지원 자격과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연세대의 글로벌리더전형, 고대의 세계선도인재전형은 △AP이수자, △외국어 관련 전문교과 이수자, △2개 이상의 공인외국어인증시험 성적제출자 등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 두 전형에서 학생부를 포함한 서류의 반영 비율은 40%이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외국어 교과를 38단위 이수(제 2외국어 4단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일반고 학생이 지원하기는 어렵다. 또 고려대의 국제학부전형, 이화여대의 국제학부와 스크랜튼 학부 전형, 서강대의 알바스트로국제화 전형, 한양대의 국제학부, 외국어 우수자, 글로벌한양 전형, 성균관대의 글로벌인재 전형은 일정 수준의 외국어공인인증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들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포함하지 않거나 비교과 영역만 포함하고 면접(또는 영어 면접)등을 통해 선발하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고 있었다. 수시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거의 모든 학과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연대, 고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의 경우 학업우수자 전형(수시)에 수능에서 2개 이상의 영역에서 1등급 이내인 학생들 중에서 50~60% 우선 선발하는데 우선 선발에서는 수시전형임에도 학생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되더라도 20%미만으로 반영되며 논술이 주로 반영된다.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에서 수능 100%로 정원의 50~70%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단계 전형에서 수능 100%를 통해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50%, 학생부 20%, 논술 30%를 통해 선발한다. 다른 학교들처럼 수능우선선발 전형은 없으나 2단계에서 학생부의 비율이 고대, 연대, 이화여대보다 낮다.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일반선발에서도 학생부의 비율은 20%내외로 수능의 비율이 70~75%로 매우 높았다.

외고 우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모집 정원 대비 외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의 모집 인원 수를 각각의 전형의 지원 자격과 학생부 반영 비율의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공인 외국어 성적 제출 또는 외국어 전문 교과 58단위 이상 이수 등 외고 졸업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원 자격을 주든지거나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외고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리한 전형(●●)을 학생부를 10% 이내로 반영하고 논술 등을 통해 선발하는 전형, 마지막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 내외이며 나머지 영역을 수능 점수 등으로 반영하는 전형을 비교적 외고 우대 정도가 약한 전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고대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대 50.5%, 한양대 46%, 성균관대 38%, 이화여대 32.2%, 서강대 30.0%, 서울대 11.7%으로 나타났다.

수시 전형은 다양하고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나 주요 대학들의 입시 전형 안을 살펴본 결과 결국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높은 수능 성적이었다. 각 수시 전형에 있어서 특히, 학업우수자 전형에 있어서는 우선선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2개 영역 이상에서 1등급 이내의 학생들을 추려서 학생부 반영이 없거나 20%미만으로 아주 적게 반영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서울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적어도 학업우수자 우선선발에 있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머지 대학들의 수능 기준이 높다. 정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다르지 않다. 정시에도 수시의 학업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우선선발 제도가 있어 적게는 정원의 50%, 많게는 정원의 70%까지 수능점수만으로 우선 선발하게 된다. 수시를 통해서나 정시를 통해서나 각 대학들의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끊이지 않는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들 주요 대학이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보다는 현재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다. 그나마도 학생부를 신뢰하지 못하며 논술과 보다 객관적인 수능을 의존하고 있다. 물론

각 대학별로 기회균등전형, 사회적배려자 전형, 특기자 전형, 자기 추천 전형 등 다양한 수시 전형들이 존재하지만 학업 우수자 전형과 비교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하다.

고대와 연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외고 졸업생이 아니고서는 지원할 수 없는 전형 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반고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AP 성적 3과목 제출, 공인 외국어 성적 2개 이상 제출, 외국어 전문교과 58단위 이수 등 드러내놓고 외고생을 선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외국어성적을 요구하며 외고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지원 자격과 학생부 반영 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어 상대적으로 내신에 불리한 외고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전형 안을 구성하고 있다. 외고는 외국어 전문 교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의 경우에도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공인외국어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시 전형의 경우 국제학과 전형을 제외하고는 어느 학과로든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어공인성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등으로 토플, 텡스, JLPT 등의 공인외국어시험대비반이 개설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입시전형이라고 여겨진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고대와 연대의 경우는 외고 출신이 전체 정원의 25%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 전형이 외고 출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대학의 외고 출신 우대는 외고가 외국어 수월성 교육 또는 어학 영재 교육 기관이 아니라 입시 명문고로 전략하도록 하며 외고 자체도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보다 많은 학생을 명문대에 보내는데 치중하게 되고 따라서 입시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외고는 명문대 진입의 디딤돌로 여겨지고 학생들은 중학교때부터 외고입시라는 또 다른 입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각 대학들이 외고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전형들을 재고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고는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것이다.

## Ⅲ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 1. 복지적 관점에서 학교를 본다는 것의 의미

아래 표는 학습부진학생 비율이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별 기초미달 학생 비율(%)>

	초6				중3				고1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국어	-	4.0	3.7	3.8	-	6.1	4.4	7.4	-	6.4	4.0	4.3
사회	2.1	1.5	1.7	1.7	5.7	4.8	5.2	6.9	8.1	11.6	11.6	12.6
수학	3.7	2.1	1.3	1.2	11.5	8.7	3.6	6.9	10.0	9.3	8.2	10.4
과학	4.8	6.4	2.0	2.0	9.5	8.5	4.8	5.8	12.5	19.8	9.5	13.0
영어	2.7	2.3	2.5	2.9	5.2	3.5	3.6	4.9	6.6	5.0	2.7	4.9

출처: 교과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sup>5)</sup>은 총 664억원이었고 이중 강남구가 96억원, 서초구 52억원, 중랑구 39억원, 노원구 38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 5억8000만원으로 강남구와 무려 16.5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당 지원 금액은 강남구 8500만원, 서초구 6800만원 순으로 많았고 도봉구와 금천구는 880만원, 1100만원 순으로 적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도 강남구 11만2000원, 중구 9만6000원, 서초구 9만1000원인 데 비해, 도봉구와 금천구는 1만2000원, 1만5000원으로 전체 평균 4만4000원에도 훨씬 못 미쳤다(경향신문, 2008년 10월 7일자).

이러한 자료들은 우선 학습부진아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 지원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들도 입시 성과를 낸 학교라든지 잘사는 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복지적 관점에서 학교를 본다면 그동안 주목했던 학교보다는 주목하지 않은 학교를, 입시 성과를 많이 낸 학교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교를, 도시의 학교보다는 농촌 학교를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Stoll(2002)은 학교 혁신을 효과성과 발전성이 있는 학교로 분류하였다. 그의 기준에 의하면 학교는 <표 1>과 같이 분류된다.

<표1> Stoll의 학교의 분류표

	혁신형 (Moving)	고군분투형(St ruggling)	순항형 (Cruising)	침몰형 (Sinking)	방황형 (Strolling)
발전	0	0	x	x	△
효과	0	x	0	x	△

대부분의 학교는 방황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학교는 발전성과 효과성의 중간 지점에서 단위학교에 요구되는 과업에 대해서 적당히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순항형의 경우, 외부적으로 학업성취도 차원에서 우수한 평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서서히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한 채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침몰형은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면서도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군분투형은 객관적인 성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뜻있는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의미한다. 혁신형은 발전성과 효과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박삼철, 2005),

그것은 주체 만족도라든지 학업성취도 등에서 기존 보다 혁신 시도 이후 객관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동시에 학교 운영 체제에 기존의 틀과 관행으로부터 벗어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좋은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야 한다는 소위 명문학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명문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적지 않지만, 그런 학교일수록 오히려 학생 인권, 교직 문화, 창조적 수업,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이 제대로 이

5) 교육경비보조금이란 통상적인 교육재정(중앙정부 교부금+ 지자체 법정 전입금+ 교육청 자체 수입)외에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체육문화 공간 설치, 기타분야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정부담도와 지자체 교육여건,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결합되어 학교 지원액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컨대, 과천이라든지 성남 등에서는 이미 초등학생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학교는 자사고나 국제학교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다. 근래에 들어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층 양극화가 교육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방 이후 계층 간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교육이 했지만, 90년대 이후 들어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라든지 명문대학교 입학생 등을 종속변인은 외고 입학생 등의 부모 직업 분포, 사교육비, 소득 수준 등의 독립변인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교육을 통한 구별 짓기의 행위가 고교 평준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왔지만, 근래에 들어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소비자 주권 등이 강조되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특목고나 자사고의 위력이 더욱 커졌고, 이 과정에서 평준화 제도가 점차 무력화되는 흐름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에서 우리는 소외된 학생과 계층이 많으며,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신입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1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한다. 복지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학교는 그동안 교육적 성과가 그들의 불리한 여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학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학교의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똑같은 선상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시키는 방식의 기계적 평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오히려 초등학생을 먼저 뛰게 하거나, 3-40미터 정도 앞에서 뛰게 해주는 것이 정의의 원리에 부합된다. 그런 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학교를 본다면 기존의 학교보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불리하거나 어려운 여건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사는 계층의 학생들만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정학교와는 출발의 지향점이 다른 것이다. 복지 지향적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을 넘어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 2. 해법

### 1) 착한 해법

#### 가. 지역 대학생과 선배들의 멘토-멘티 활용

어느 학교든지 학습과 생활지도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학습 결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학습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고, 학교 수업을 따라오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습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업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곤 한다. 그러한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의 경우,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학생들일수록 교사들이 학생의 특성을 충분한 파악을 하고,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세밀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일일이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학습 부진의 책임을 개인 내지는 가정에 돌렸던 경향이 있다. 실제, 대부분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학생의 가정적 배경이 학교 요인에 비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경근,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학생의 학업 성취도

에 상당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 정책의 흐름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에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sup>6)</sup>을 스스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교는 교사들이 학습부진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업 방법과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구성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적절한 외부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과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가깝게는 출신학교 선후배, 자원봉사자, 학부형, 인근지역 대학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비 사범대학생이나 교대생의 경우, 현장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대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다.

도시가 아닌 열악한 지역의 경우는 방학을 활용하여 과거의 농활을 응용한 형태의 학습 및 상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동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멘토와 멘티의 활성화는 적절히 활용된다면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만남에 대한 욕구, 소통에 대한 욕구,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 자원 봉사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 교사대 임용고사시 가산점 부여, 봉사활동자에 대한 학교장 추천을 통한 기업 채용시 가산 부여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이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열정이나 준비도가 떨어져있고,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 도와주는 대학생은 큰 마음 먹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 학생을 돕고 있는데, 학생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그 과정에서 열매를 단기간에 내지 못한 채, 좌절하여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간 정보 공유, 전문성 향상, 학습 및 수업 기법, 상담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

#### 나. 가정방문과 결연의 적극적 활용

최근 들어 가정방문을 시도하는 교사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과거에도 가정방문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촌지라든지 학부모의 접대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문서만으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을 잘 모르면 형식적, 피상적 교육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교사가 학생 개개인이 가진 고민이라든지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된다. 학생의 삶은 부모라든지 가정적 요인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임과 학생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충분한 인격적 만남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조종례 5-10분의 시간으로 담임교사가 학생 40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6) 경기도의 경우 2008년 학습부진아를 위한 예산은 7억 9,556만원이 편성된 반면 영재교육(예체능영재 제외)을 위한 예산은 94억 6,99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sup>1)</sup> 12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과학영재학교의 설립하고 이를 위해 5년간 350억의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관심의 크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차원에서도 학습부진아를 위한 예산은 보잘 것 없다. 인천의 A초등학교는 학습부진아 지도 예산이 600만 원 정도인 데 비해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은 6,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강사비에서도 차이가 난다. 부진아 지도 수당은 12,500원 ~15,000원인데 비하여 영재교육 지도 수당은 7만원 수준이다. 경기도의 B 초등학교는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예산이 300만 원 정도인 반면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은 1,900만원 정도였다. 이 학교의 내빈 접대비는 570만원이 넘는다. 서울의 C초등학교는 학습부진아 지도경비는 40만원인 반면, 학교운영위원회 감사패 비용이 80만원이고, 운동회 때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체육복 경비가 350만원이다. 이런 사실은 학교에서나 교육청이나 국가 차원에서 학습부진 문제를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좋은교사운동, 2009, p14) .

하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를 느낀 교사들에 의한 가정방문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정 방문을 통해 담임교사는 학생의 특성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학교로 찾아오기 힘든 학부모를 가정에서 만나게 됨으로 인해 부모와 교사 간 연대의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가정 방문 이후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복지적 관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가정방문은 담임과 학생의 만남이 행정적인 관계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깊이 있는 만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과 교사 간 보다 깊이 있는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급 운영 지원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 다. 진단과 처방에 입각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최근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사교육의 경우, 학생의 성적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반면에 공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려는 논의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공교육 체제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이 학습에서 어떤 점에서 강점과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사들이 먼저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메타 학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습법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전략을 써야 하는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전략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명목적으로 공부를 강조하거나, 비효과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신을진, 2005). 이를 위해서 학습에 관한 교재와 프로그램, 인지학습론에 관해서 교사들이 먼저 학습하고, 경험과 사례를 나누며, 그들의 처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연구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학생이라든지 올라간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교사들은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축적된 경험 체계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사들의 학습 지도, 상담, 진로계발 등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기존의 지능검사와 적성검사 이외에도 MBTI, 다중지능,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검사지를 활용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상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상당히 느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교의 경우, F학점을 맞으면 다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은 고등학생이 구구단을 몰라도 엉덩이만 책상에 붙이고 앉아 있으면 졸업이 된다. 학교는 수업만 하면 되고, 학생들은 앉아만 있으면 된다. 학습부진의 책임은 개인이 질 뿐이다.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학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방과후 교육이든 정규과정이든, 일정 학습 수준에 도달되지 못한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 교육에는 없는 것은 문제이다. 이 방식은 보조 인력의 투입을 통해서 예산 확보만 된다면 어느 정도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마. 농어촌 학교, 슬럼화된 학교에 대한 공모제 학교 지정

현재 농어촌 학교는 학생들이 떠나고 있으며, 점차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많다. 도시 역시 신도시가 생긴 곳에서는 구시가지에서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신도시와 구도시간 학교간 계층 배경에 따른 학교 수준 차이가 발생한다. 신도시의 경우, 특목고라든지 명문대학에 잘 보낸다는 입시 성과가 나면 그 학교에서는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학군 재배정에 관한 논의가 나온다. 학군 재지정을 해달라는 입장과 학군 재지정으로 인해서 교육 여건이 더욱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간 갈등이 발생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이후 혁신학교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촌학교 내지는 도시 지역에서도 슬럼화 된 학교를 지정하여, 내부 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발하고, 뜻있는 교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내외로 지정하고, 학교당 2억씩 지정을 한다. 이러한 학교는 기존의 교육 지원 방식과 다르다.

농어촌 학교라든지 슬럼화 된 학교는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4년 이상의 장기적인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승진 형 교장 제도보다는 내부 형 공모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 모델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그 성과 여부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바. 학교 사회복지사 확충

소외학생들을 돕는 것은 학교 차원의 노력으로 되기 어렵다. 지자체, 시민단체, 복지단체, 상담단체 등의 제단체와 연결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교사들이 수업과 학급운영, 기타 행정 업무를 하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지자체의 도움을 통해서 적용한 학교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에 사회 복지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의 협조와 의지, 예산 지원이 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 2) 적극적 해법

### 가. 특목고의 사회배려자 전형 확대

특목고는 현재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특목고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거의 진입이 어렵다. 특히, 과학고의 경우, 입학만 한다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공대 등 진입을 거의 확보해놓은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사회배려자 전형이 충분히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외고의 경우, 사회 배려자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4%에 불과하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 들어갔다고 해도 학비, 학업부적응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다니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10%-20% 이상은 사회 배려자 전형이 정원 외든 정외 내든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진입할 수 있어야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 나. 입시 체제의 개선

우리나라 입시 체제는 현재 수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능이 비중을 차지할 수르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수능의 비중을 낮추려고 했

다. 이명박 정부는 내신보다는 수능의 비중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고교간 차이로 인해서 내신에 관한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내신 제도는 학교간 격차를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유익성을 가지고 있다. 시골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비록 서울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에 비해서 수능 성적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골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가정적, 지역적 여건 탓에 서울 학생에 비해서 절대적 실력이 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잠재가능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시골 학생도 여건이 갖추어지고 적절한 지원 체제만 있다면 서울 학생에 비해서 훨씬 탁월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1-2점 소수점 경쟁에서 벗어나서 잠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그것은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결과 평가에서 과정 평가를 중시하는 선진국형 내신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질 높은 내신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공교육 개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다. 입학사정관제의 소수 배려자 정책의 활용

입학사정관제는 양날의 칼이다.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가정적 배경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객관적 조건이 안 좋아도 대학에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평가관, 평가 철학이 뒷받침될 때 그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기본적으로 소수 배려자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겠다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서 그런 학생들을 어느 정도로 뽑았는지 훗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라. 무료 급식 및 학용품 지원 체제 도입

이미 경기도에서는 무료급식 체제 갖추기를 시도하고 있다. 과천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초등학생들의 경우, 무료급식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학교의 공공성의 의미를 더욱 살리면서, 지원되는 급식비만큼, 급식비 절감으로 인한 소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가 우리나라 농촌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서 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고, 점차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고양 덕양중학교는 미술품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학교 예산을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 요인. 한국교육사회학 15(3), 1-27.
- 김대일(2004).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심상달 편,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삼철(2005). 학교조직 변화과정 모델 탐색: 학교조직문화와 기술구조적 접근의 수용적 통합. 교육행정학연구 23(1), 49-69.
- 손준중(2006). 교육 양극화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 연구 10(12), 31-58.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09). 외교 대책 토론회 4회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이봉주 외(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33(2), 75-107.
- 좋은교사운동(2009). 학습부진아 토론회 자료집. 좋은교사운동
- 연합뉴스, 2009년 4월 13일
- 경향신문, 2008년 10월 7일자
- Stoll, L.(2002). *School culture: black hole or fertile garden for school improvement?*. in j. Prosser(Ed). School culture, (pp. 30-47). London: Paul Chapman.



## 방과후학교의 현황과 성과

변종임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방과후학교 팀장)

### I 들어가는 글

최근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교육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과후학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5년 '특기적성교육'으로 시작된 '방과후교실'은 2004년 '수준별 보충학습'과 '방과후 보육'이 더해지면서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방과후학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방과후학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과 보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학교교육기능의 보완은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차원에서, 교육복지 실현은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보육 및 청소년 보호와 선도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의 학교 내 흡수 차원에서, 그리고 학교의 지역사회화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국가수준에서 기대하는 교육경쟁력이란 전체 학생들의 균형 있는 교육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부모의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교육격차로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데 정책적 관심이 모아졌다. 교육기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복해나감으로써 전체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지원비용이 투입되는 방과후학교 정책은 저소득층의 맞벌이 자녀를 위한 초등 보육교실 운영, 자유수강권 제공,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방과후학교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일부 사교육비 감소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홍원 외, 2008, 김현철, 2007). 수치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학교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교육청 차원에서 주말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들이 출근한 뒤 방치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학습 현장 경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 저소득 계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수업, 초등보육과 돌봄교실 프로그램 등 학교급별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외현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방과후학교 내실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하여 우수 교·강사수급의 문제, 담당교원의 업무 증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장치 미흡, 질 높은 프로그램의 부족, 각 부처 유사 사업 간의 연계미흡, 교육환경 조성, 수익자 부담원칙, 예산 문제 및 회계 문제, 수당과 인센티브 마련, 정규시간과 방과후 수업시간과의 연계 부족(단절), 프로그램 간 수준별 연계 부족,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평가 문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김홍원 외, 2008; 조덕주, 2008; 이혜숙, 2008; 김기홍, 2006; 홍후조 외, 2005).

본 원고는 그동안 방과후학교 정책이 추진되어온 배경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본 뒤, 향후 발전적 추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마치고자 한다.

## II. 방과후학교의 정책 추진 과정

### 1. 방과후학교 정책 추진 과정

‘방과후학교’라는 개념과 명칭이 도입된 것은 2005년 3월이지만, 그 시작은 1995년 5. 31 교육개혁에서 제시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특기·적성교육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러한 특기·적성교육은 1996년에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명칭 하에 개인의 소질·적성·취미·특기 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교육부의 ‘방과후활동 활성화 방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과후활동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를 학교 안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특기적성 개발활동과 보충자율 학습을 포함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교육부, 1996. 2). 1997년에는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란 개혁과제로 방과후 교육 활동이 확대되었고(교육부, 1997), 이러한 방과후 활동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탁아 기능’, 학교에서 특기활동을 지도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시·군·구 교육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예체능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허경철, 홍생표, 1998). 1999년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 자율 학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은 소질, 적성 개발, 취미 특기 신장의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교육부, 1999), 특히 교육적 기회균등 차원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기회균등과 교육복지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2004. 2. 17)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수준별 보충수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이 허용되면서 ‘방과후 교실’로 변경되었다. 2004년 4월에는 ① 사교육 수요의 학교 안 흡수, ② 저소득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형평 도모, ③ 학교의 보호·교육 기능 강화, ④ 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등이 방과후학교의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이 4대 목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 정책 목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을 확대 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을 대상으로 한 보육 기능을 적용한 '방과후 교실'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활동이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 수요를 흡수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 아래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 방과후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전환한 '방과후학교' 체제를 도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으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며, 기존의 수준별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총칭하여 통합한 것'(교육인적자원부, 2007)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개방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자율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로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추진 체제가 지역 중심으로 이양되었고,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이 수립한 시·도별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3일에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의 구체적 안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체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저소득층 지원을 제안하였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 과제에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활용, 엄마품 멘토링제도 도입, 대학생 및 군장병 활용 확대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사업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에는 수준별 교과보충 심화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교육-돌봄 서비스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는 초등학교 보육기능 강화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확대를 포함시켰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방과후학교 정책 변화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과정

시기/정책	내용	용어
1995. 5. 31 '교육개혁'	-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기 위한 방안	방과후 교육활동
1996. 2. '방과후 활동 활성화 방안'	- 개인의 소질, 적성, 취미, 특기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 목적 -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교육활동'이란 명칭으로 각급 학교에서 실시 - 의무적 보충수업 폐지 - 특기·적성 계발활동 및 보충자율 학습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	
1997. 6. 2.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 방과후 교육활동 확대 -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탁아기능 포함	
1999. 2. 10. '특기적성 교육 활동 운영 계획'	- 보충 자율학습의 단계적 폐지 -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 교육으로 명칭 변경 - 입시위주 교육 탈피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 계발 강조	특기적성 교육
2004. 2. 17. '사교육비경감대책'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준별 보충수업 다시 추가 - 수준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허용, 방과후 교실로 명칭 변경 -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도 포함	방과후 교실
2005. 3.	- 방과후 학교 개념 및 시범 도입 - 연구학교 시행 : 전국 48개 연구학교	방과후학 교
2006.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방과후학교 시범 학교 운영'	- 수요자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수 준별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총칭하여 '방과후학교'로 통합 -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연구학교), 시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운영	
2007. '방과후학교 운영기본계획',	- 방과후학교 전면 시행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구축, 방과후학교페스티벌 개최	
2008. '학교자율화 방안'	- 교육청이 수립한 시도별 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 허용	
2009. 6. 3.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방안 제안 · 운영 시스템 체계화 : 학부모 코디네이터 활용, 엄마품 멘토링제 도 입, 대학생 및 군장병 활용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프로그램 다양화 : 수준별 교과 보충·심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 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 교육 돌봄 서비스 및 저소득층 지원 : 초등 보육 기능 강화, 자유 수강권 지원 확대 추진	

## 2. 방과후학교의 성격과 목적

방과후학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이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정리되면서 방과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과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방과후학교를 “미래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이고 심신이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관리, 지도강사, 교육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프로그램 등을 확대·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2006년 「2006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서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학습(고교)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기존에 수행되어 온 방과후 교육활동들을 통합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와 방과후 교육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구 분	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추진방향
운영 주체	학교장 중심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주체의 개방성 확대	운영주체의 개방화
지도 강사	현진 교원 중심	현직 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 회인사 등으로 다양화	지도강사의 다양화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위주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대상의 다양화
교육 장소	본교 시설 위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 극대화	교육장소의 다양화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중시	프로그램의 수요자 중심 개설 및 선택
교육비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소외계층 집중 지원, 교육의 형평성 구현	교육 격차 해소
실시 시간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방과후 특기적성시간	일과 전과 후, 토요일휴업일, 방학 중에 실시될 수 있음. 돌봄과 보호의 기능 수행	실시시간의 자율화

출처 : 김홍원(2008), 기초학력 신장 및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방과후학교는 학교 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과 구분된다. 방과후 활동이라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방과후 활동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민가정·맞벌이 자녀 대상 놀토 체험 여행,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실' 운영을, 보건복지가족부는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홍원(2007; 2008)은 방과후학교를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2007, 55-56; 2008, 30). 이혜숙(2008)은 '정규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후에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으로 보았다(이혜숙, 2008).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교육받는 당사자의 '주문에 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받는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교육'을 의미한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는 수요자의 의지가 교육활동의 선택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를 결정하는 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는 배우는 사람 교육받는 대상자가 중심에 놓여있어야 한다. 배우는 사람의 관심과 흥미, 욕구가 교육과정에서 존중되는 교육이 수요자 중심 교육인 것이다(김성렬, 1998).

이를 종합하면 방과후학교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란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기존의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심화보충학습, 초등보육 프로그램, 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되는 방과후 학교 사업에 국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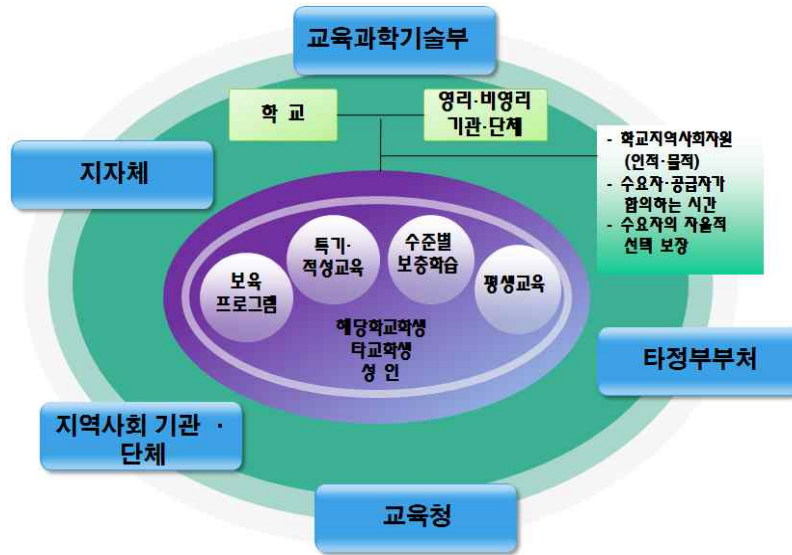
방과후학교는 '학교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2007). 각각의 목표가 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 교육기능 보완을 추구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의 잠재력 계발 및 인성·창의성 신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정규교육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한성을 극복하면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이라는 교육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 안팎의 인적·물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을 추구한다. 방과후학교에서는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교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목적이다. 셋째, 교육복지 실현을 추구한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력 신장을 통해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적 소외가 개인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데 기인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구현 및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 개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넷째,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추구한다. 방과후학교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힘쓴다. 지역교육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규정된 하나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자율적 운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및 전문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강사료 및 수강료, 예산 편성·집행, 프로그램 위탁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수립한 시·도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외부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현직 교원, 외부강사, 지역사회 인사, 자원봉사자 등 단위학교가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모든 사람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강사 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과후학교는 교육대상으로 본교 재학생 이외에 타교 학생, 지역사회의 성인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본교 시설 뿐 아니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의 목표로 볼 때,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과 학교 밖 사교육의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 방과후학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부 사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 공적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기에 공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육과의 연계 부분도 정규교육과정과의 연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보완 또는 대체로 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허경철, 2008 : 43-44 ; 이혜숙, 2008 : 12). 한승희(2006)는 방과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이 만족시킬 수 없는 민간 학습시장의 교육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학교교육이 가정하는 기초핵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이자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과정이고, 정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방과후학교 운영방식

출처: 김홍원(2008). 기초학력 신장 및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Ⅲ. 방과후학교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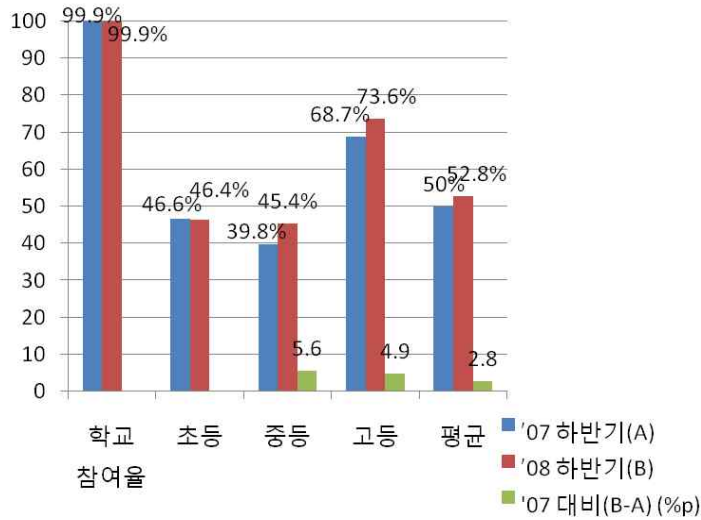
#### 1. 방과후학교 실태 분석과 만족도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학교는 전국 초·중·고의 99.9%에 이르러 거의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3.3%(2008)로 과반수를 약간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 참여율을 보면 2003년 37.9%에서 2005년 34.0%, 2006년 10월에는 41.9%에 이르렀다가 2007년 10월에는 50.0%, 2008년 6월에는 54.3%, 2008년 10월에는 52.8%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도 하반기 통계를 보면, 전체 학교(11,114개교)의 99.9%(11,098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전체 학생(7,506,571명)의 52.8%(3,960,025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였다. 학교급별 학생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46.4%, 중학교 45.4%, 고등학교 73.6%이다. 학생 참여율은 2007년보다 2.8%p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5.6%p, 4.9%p 증가하였다. 지역 특성별 참여율을 보았을 때,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68.7%로 전국 평균을 15.9% 상회하였다.

<표 3> 2008년도 하반기 방과후학교 참여율

구 분	학교 참여율	학생 참여율			
		초	중	고	평균
'07 하반기	99.9	46.6	39.8	68.7	50.0
'08 상반기	99.9	46.9	45.5	59.9	54.3
'08 하반기	99.9	46.4	45.4	73.6	52.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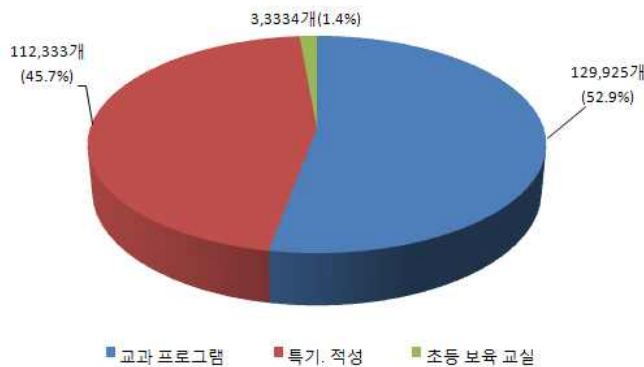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및 학생 참여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프로그램 수는 245,592개로 2007년 대비 37.3% 증가하였으며, 전체 프로그램 중 교과 프로그램이 52.9%,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45.7%를 차지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중 교과 프로그램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구분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등 보육 교실	계	
초등학교	13,666	81,237	3,334	98,237	
중학교	38,100	19,833	-	57,933	
고등학교	78,159	11,263	-	89,422	
계	수(개)	129,925	112,333	3,334	245,592
	비율(%)	52.9	45.7	1.4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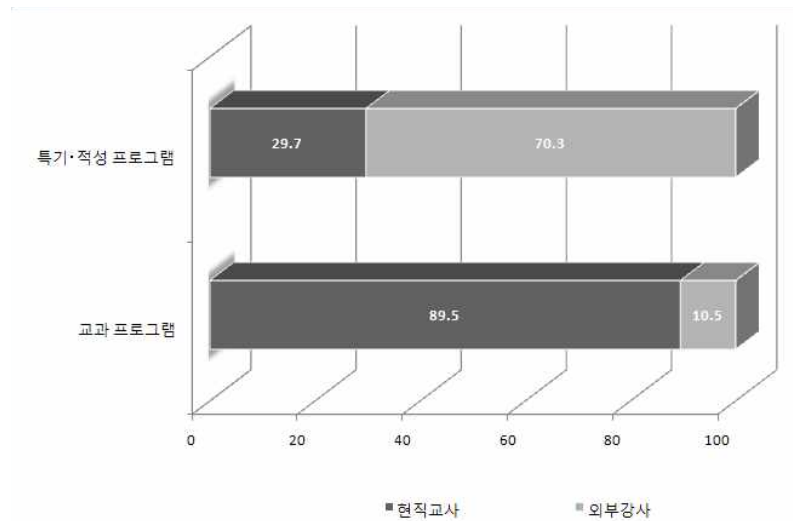
[그림 3] 특기·적성, 교과, 보육 프로그램 현황

강사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교과 프로그램은 현직교사 운영이 대부분이며(89.5%),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외부강사 운영 프로그램이 70.3%였다. 교과와 특기·적성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현직교사 운영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표 5> 강사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

구 분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초등학교	수(개)	5,973	7,693	13,666	13,405	67,832	81,237
	비율(%)	43.7	56.3	100	16.5	83.5	100.0
중학교	수(개)	35,132	2,968	38,100	11,495	8,338	19,833
	비율(%)	92.2	7.8	100	58.0	42.0	100.0
일반계고	수(개)	63,954	2,134	66,088	3,543	1,318	4,861
	비율(%)	96.8	3.2	100	72.9	27.1	100.0
기타고	수(개)	11,256	815	12,071	4,877	1,525	6,402
	비율(%)	93.2	6.8	100	76.2	23.8	100.0
계	수(개)	116,315	13,610	129,925	33,320	79,013	112,333
	비율(%)	89.5	10.5	100	29.7	70.3	10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4]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살펴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는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생·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표 6> 학교급별 만족 비율(%)

학교	학 생			학 부 모		
	만 족	보 통	불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초등학교	78.5	18.9	2.7	73.6	24.2	2.3
중학교	61.6	28.8	9.6	65.7	27.0	7.2
고등학교	42.1	35.7	22.2	48.0	36.0	16.0
평 균	67.2	24.6	8.2	66.6	27.2	6.2

\* '08년 하반기 : 시도교육청을 통한 설문조사(학생423,132명, 학부모 383,875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지역별로 보면, 학생·학부모 모두 농산어촌의 만족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각각 2.4%p, 4.3%p가 높게 나타났다.

<표 7> 지역별 만족 비율(%)

구 분	학 생			학 부 모		
	만 족	보 통	불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농산어촌	69.9	22.5	7.6	70.2	24.3	5.5
중소도시	66.0	25.3	8.7	65.7	27.7	6.6
대도시	67.5	24.8	7.7	65.9	28.3	5.8
평 균	67.2	24.6	8.2	66.6	27.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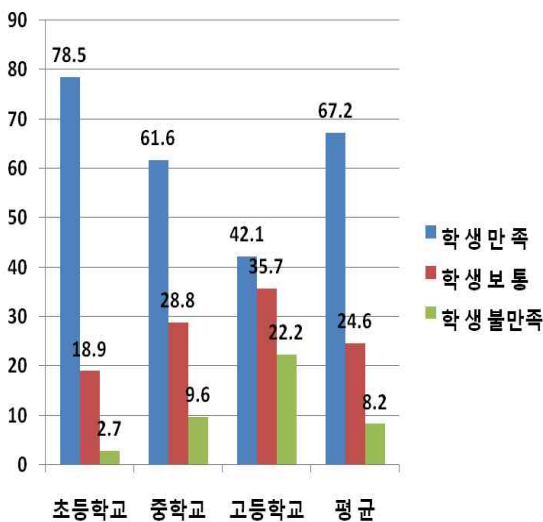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소질 계발 및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학생 66.8 %, 학부모 65.5 %로 '07년 대비 각각 6.4 %p, 증가하였으며, 사교육비 감소에 대해서는 학생 61.1 %, 학부모 62.0 %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07년 대비 각각 6.0 %p, 5.2 %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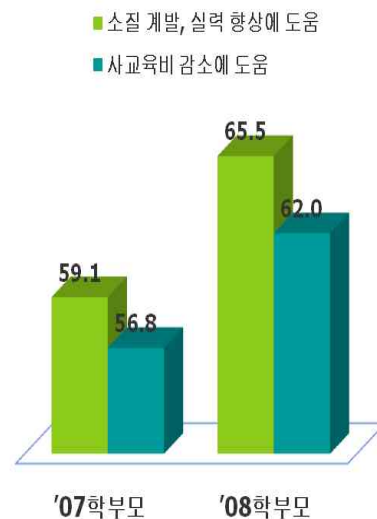
<표 8> 방과후학교 참여 효과에 대한 만족 비율(%)

구 분	'07		'08	
	학 생	학 부 모	학 생	학 부 모
소질 계발, 실력 향상에 도움	60.4	59.1	66.8	65.5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	55.1	56.8	61.1	62.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5]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



[그림 6]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 2. 방과후학교 추진 정책 사업별 현황

현재 정부와 각 교육청은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주요사업과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농산어촌은 이농현상에 따라 한부모·조부모 가정이 많고 농림어업 등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정도 많아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낮은 편이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열악하거나 학교 이외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산어촌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수요와 필요성은 높으나 소규모 학교, 강사 자원 부족,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 부담 운영이 쉽지 않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2007년도에 89개 시군에 497억 원을, 2008년도에는 140개 시군에 7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11>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기타고	총계
학교 수	2,533개	1,208개	346개	291개	4,378개
학생 수	340,458명 (58.1%)	214,878명 (79.4%)	119,482명 (89%)	69,545명 (75.4%)	744,363명 (68.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현재, 농산어촌지역의 학생 중 744,363명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지원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방과후학교가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학부모의 50%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사교육비 경감 및 대체효과에 대하여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44%로 였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 학부모의 49%, 학생의 4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참여 계획에 대하여 학부모의 57%, 학생의 4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김홍원 외, 2008).

그러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받는 농산어촌의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가 기보다 무조건적인 지원에 따라 수강하는 경우가 많고, 수강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이해가 부족하여 출석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학교 간 접근성이 낮아 연계 프로그램의 활용 및 인프라구축이 미비한 한계를 안고 있다.

##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바우처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수강료를 지불하기 어려우므로,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 자유수강권은 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②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과 ③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된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은 연간 30만원내외의 범위에서 자유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도록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 확대를 위하여 예산을 2008년 1,146억 원에서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1,034억 원을 편성하였다(김진숙, 2009).

<표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일반계	기타계	
전체 학생수	213,850명	164,885명	82,005명	78,214명	538,954명
지원 학생수	104,743명	59,516명	41,770명	29,754명	235,783명

출처 : 교육인적기술부(2006). 방과후학교 현황 ('06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 자유수강권을 지원받는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자유수강권을 받은 다음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7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자유수강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또한 87%이상이 긍정적이었다(김홍원 외, 2008).

그러나 낮은 학업성취도 및 학업성취 욕구를 보이는 상당수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의 특성을 간과한 채, 공급자 중심에서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에 따라 자유수강권 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들에 대한 계획적인 지도 노력의 부족으로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 3) 초등 보육 교실과 종일 돌봄 교실 지원

맞벌이 부부 및 근로빈곤층의 증가, 한부모 가족 증가 등 가정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을 정규수업 종료 후에 공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초등학생 자녀의 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방과후에 방치되어 결식, 비행, 학습결손,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후와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 인력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정규 수업+방과후 활동+가정'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 돌봄 교실'을 확산시키고 있다.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는 2006년 1,747개, 2007년 2,719개, 2008년에 2,962개 학교로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수는 2008년 54,63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13>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 현황

운영 학교수	운영 학급수	학생 유형별 참여 학생 수				계
		기초생활 수급자	중식 지원자	맞벌이 부부자녀	기타	
2,962개	3,334개	7,761명	7,975명	27,177명	11,725명	54,638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현재, 자녀를 초등보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학부모 중 75%가 보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정서발달(80%), 특기적성개발(66%)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초등보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 역시 만족도가 높아, 참여 학생의 76% 이상이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원 외, 2008).

그러나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가정의 보육·교육기능을 보완하는 것인 만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휴업일과 방학 중 운영 활성화와,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환경 마련, 보육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연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 4) 대학생 멘토링 제도

대학생 멘토링(Mentoring)은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Mentee)들을 대학생(Mentor)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링은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인성 지도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07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소수의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 간의 연결 및 정기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생 멘토 1인이 소수의 멘티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1회 2시간,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며, 멘토링 장소로는 주로 학교가 활용되고 있다. 멘토 활동비는 멘토링 횟수·시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하며, 활동비 지급 외에도 교·사대 등 대학과 연계·협력하여 봉사학점 등 학점 인정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8년 6월 말 현재 대학생 멘토 9,050명, 멘티 33,665명이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표 14>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운영 현황

운영학교수	참여 학생 수 (멘티)	지도 대학생 수 (멘토)	시간당 활동비
2,065개	33,665명	9,050명	13,989원

출처 : 김홍원 외(2008).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년 현재,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도 대학생, 멘토링 활동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멘티 학생들의 77%가 멘토에 대하여 만족하였으며, 참여 학



생의 73%가 멘토링 활동 시간에 거의 결석하지 않고 참여한다고 답하여, 높은 참여성과를 보였다. 학생들이 멘토링 활동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교과학습프로그램이 74%, 특기·적성프로그램이 14%로 다소 편향되어 있다(김홍원 외, 2008).

그러나, 멘토 지원과 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생 멘토의 참여 동기가 저하되고, 체계적으로 방과후학교 멘토링 활동을 이끌 수 있는 대학생 멘토의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유형이 교과 학습활동으로 편향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이 과외활동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

### 3.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는 김홍원 외(2007, 2008)에 의해 수행된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 연구」와 평가개념을 도입하여 성과분석을 시도한 홍후조(2005)의 「방과후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 김석우 외(2008)의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 김경근(2008)의 「방과후 참여 결정 요인」 등을 볼 수 있다. 김홍원 외(2007, 2008)에 의해 수행된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반적인 방과후학교지원사업과 세부사업별 지원사업(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 초등보육 등)으로 나누어 운영실태, 만족도,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학생별 프로그램 참여 개수와 프로그램 참여 시간 등과 같은 참여 현황과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방과후학교 각 정책 사업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진단하고, 각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만족도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중심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제 없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업별 만족도를 방과후학교의 성과로 제시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평가 개념을 도입하여 방과후학교 성과분석을 접근한 연구로, 홍후조(2005)는 「방과후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에서 CIPP(Context-Input- Process-Product) 모형의 4가지 평가 유형 가운데 투입평가에 중점을 두되, 프로그램 전 영역에 걸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김석우 외(2008)의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CIPP 모형 적용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통합된 관점에서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김경근(2008)은 「방과후 참여 결정 요인」 연구에서 한국교육중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방과후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종·민족, 가정배경, 연령, 성별, 거주지 여건, 주변 친구의 영향 등 개인차원의 요인과 프로그램의 질과 재미, 담당교사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등 프로그램 차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운영실태 분석연구에서는 참여자 만족도나 참여 실태를 보려고 했다면, 평가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은 방과후학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환경, 투입, 과정 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며, 교육비를 고려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이 수준도 높은 편이 것으로 나타났다(홍후조 외, 2005).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성과에 대한 전제 없이 사업별 만족도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어, 여전히 실태분석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방과후학교 성과를 수요자의 만족도와 지원 프로그램 규모, 참여자 수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연구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학업 성취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향상, 직업 전망 개선, 반사회적 행동 감소, 복지, 시민정신 향상 등 매우 다양하게 보고 있다(Sandwe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2006). 즉, 방과후학교가 가져오는 성과를 학업성취나 사교육비 감소와 같이 어느 한 영역에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 학생 개인 수준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 분석 사례는 방과후학교 참여의 성과를 학업 성취, 사회성 발달, 청소년 비행 예방, 건강 증진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학업성취 성과 분석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규 시험에서 성적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Vandell, Reisner, & Pierce, 2007),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학교 출석률과 내신 성적, 정규 시험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Reisner, White, Birmingham, & Welsh, 2001; White, Reisner, Welsh, & Russell, 2001). 방과후학교 참여의 학업 성취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좋은 태도, 높은 출석율과 지각율 감소 정도, 학교 내 징계처분 감소율, 학업중단을 감소율, 성적 향상율, 과제 제출 비율 증가율 등을 성과 지표로 연구하였다(Black, Doolittle, Zhu, & Unterman, 2008; Vandell, Reisner, & Pierce, 2007; Jenner, & Jenner, 2007;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둘째, 학업성취 외에도 수많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은 사회성,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 등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발달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LeCroy, 2003), 우울과 불안감이 감소한 것을 느낀다고(Phillips, 1999)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프로그램이 교과 지도 목적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참여한 학생들은 비참여 학생에 비하여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언급한 연구도 볼 수 있다(Taylor, LoSciuto, Fox, & Hilbert, 1999; Durlak, & Weissberg, 2007). 이들 연구에서 성과 지표는 문제행동 감소 정도, 급우, 부모, 그리고 교사 등 타인과의 관계 형성 정도, 의사소통 기술의 개선, 자신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 향상 정도, 우울과 불안 감소 정도, 자신과 학교에 대한 생각과 태도 개선 등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방과후 방치된 아동들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 범죄, 약물 예방에 주는 영향 역시 방과후학교 참여 성과로 보는 주요 관심 영역이다. 연구 결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집단은 비참여 학생 집단보다 비행 발생률이 낮았으며(Goldschmidt, Huang, & Chinen, 2007), 음주 시작 시기가 늦고, 음주 장소에 가는 것을 자발적으로 피하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s, & Nicholson, 1998). 청소년 비행 예방부분에서의 성과 지표는 약물과 알코올 사용 기피, 비행과 폭력 행동 감소, 성적 활동 예방, 그리고 청소년 범죄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건강 증진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성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연구는 방과후학교 참여와 학생의 비만도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이다. 비만은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방과후학교를 미국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비만 문제를 막는 여러 장소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체지방수를 줄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며 영양과 운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Story,

Sherwood, Himes, Davis, Jacobs, Cartwright, et al., 2003). 건강과 관련된 성과지표에는 건강한 음식 선택, 신체활동 증가, 영양과 건강에 대한 지식 증가, 체질량지수 감소, 정상적인 혈압, 그리고 신체 이미 지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부하는 습관, 행동양식,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졌으며, 학업성취도와 출석률도 좋아졌다고 제시하였다(Little, Wimer, & Weiss, 2008). 방과후학교 참여 성과는 학업성취 성과, 사회정서발달 성과, 범죄와 약물 예방 성과, 건강과 복지 증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 문제행동감소, 타인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개선,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우울과 불안, 학교에 대한 생각과 태도, 폭력과 범죄 행동 감소, 비만 감소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Haverd Family Research Project,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정기적으로 참여함, 그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Little, Wimer, & weiss, 2008). 방과후학교의 성과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성과 규정에 따른 지표 개발을 통하여 체계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방과후 학교 성과 분석도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4대 목표인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 복지 구현,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기준으로 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 IV. 글을 마치며

학교공동체의 핵심 주체는 바로 학생들이다. 방과후학교 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 만큼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기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방과후학교가 보다 내실 있고, 균형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수혜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수혜를 받아야 할 수혜자의 요구와 기대대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를 단순한 교육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과후학교 정책은 대상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각각 방과후학교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 외부강사, 장학사, 관련 지역사회 교육기관 담당자 등의 구성 주체들의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어떠한 역할관계 속에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를 만들어가며,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는지, 주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과후학교를 지원해주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만들어져 있지만,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해주기에는 규모와 인력의 한계가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기능을 실제화하여, 교사

들을 돕는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전문직 배치도 시급하며, 전직 교원이거나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원되어야 하며,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착근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가차원의 큰 정책들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방과후학교 서비스 제공을 돕는 파트너십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은 학교의 자원들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융통성 있고 창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활동을 추진해왔다면, 다른 부처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방과후 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처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의 효율성은 묘연하며, 또한 지역 현장에서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연계체계가 부재하여 지역단위의 방과후학교 종합적 시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방과후학교 교육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협력과 현장 착근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성과 유형을 균형 있게 범주화하여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소양을 증진시킨 사례, 학업성취도를 높인 사례, 사교육비를 감소시킨 사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잘 한 우수사례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일반화된 하나의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방과후학교가 성공한 사례에는 헌신하는 교사와 교장의 리더십, 적극적인 학부모와 학생, 주위의 신뢰 등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면, 실패한 사례는 그 유형과 이유가 다양하다.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구성요소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실패 이유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와 보다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방과후학교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함께 해결 방안을 전략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부족, 정규시간과 방과후 수업시간과의 연계 부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부족,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지도의 문제, 외부강사의 방과후학교 수업 지도의 문제,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평가 문제, 방과후학교 지원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의 문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단위 사업들의 운영(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자유수강권의 실효성문제, 정규교육과정과의 내용상의 연계문제 등)의 현실적 문제들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단순한 교육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방과후학교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진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학교 안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적극적 헌신과 노력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착근된 정책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운영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방과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보와 프로그램을 교류하며,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는데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단순한 개인의 교육적 성취를 넘어, 개인의 문제, 사회경

제적 복지, 적극적 시민 정신, 지역사회의 재생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성공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 <참고문헌>

- 권두승. (2005). 21C 지역사회학습센터(21stCCLC). 평생교육학연구.
- 김경근. (2008년 10월). 방과후 참여 결정요인. 제2회 한국교육정단연구 학술대회(pp. 505-5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홍 외. (2006). 지역네트워크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석우, 한홍련. (2008).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 *교육평가연구*, 21(1), 27-53.
- 김성렬. (1998). 수요자 중심 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교육마당 98년 4월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숙. (2009). 방과후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방과후학교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현철 외. (2007). 방과후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 효과 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홍원. (2008).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2008). 기초학력 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숙 외. (2008).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시정연 2008-PR-46).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덕주. (200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범 운영 실태분석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수탁연구 CR 2008-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승희. (2006). 학교의 지역사회화의 의미와 실천방안.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경철. (2008).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정책 개발 연구 포럼 성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 외. (2005). 방과후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2006).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7).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Durlak, R., & Weissberg, R. (2007). *The impact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Chicago: CASEL.
- Goldschmidt, P., Huang, D., & Chinen, M. (2007). *The long-term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ming on educational adjustment and juvenile crime: A study of the LA's BEST after-school program*. Los Angeles: UCLA/CRESST. Available at [http://www.lasbest.org/resourcecenter/LASBEST\\_DOJ\\_Study\\_Brief.pdf](http://www.lasbest.org/resourcecenter/LASBEST_DOJ_Study_Brief.pdf)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Are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related to before-and after-school care arrangement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5, 280-295.
- LeCroy, C. W. (2003). *Experimental evaluation of "Go Grrrls."* Tucson, AZ: Author.
- Little, P. M. D., Wimer, C., & Weiss, H. B. (2007).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21st century:*

- Their potential and what it takes to achieve it.* Cambridge, MA: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 Phillips, R. S. C. (1999). Intervention with sibling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0(6), 569-577.
- Reisner, E. R., White, R. N., Birmingham, J., & Welsh, M. (2001). *Building quality and supporting expansion of After-School Projects: Evaluation results from the TASC After-School Program's second year.* Washington, DC: Policy Studies Associates.
- Story, M., Sherwood, N. E., Himes, J. H., Davis, M., Jacobs, Jr., R., Cartwright, Y., et al. (2003). An after-school obesity prevention program for African-American girls: The Minnesota GEMS Pilot Study[Supplement 1]. *Ethnicity & Disease*, 13(1), 54-64.
- Taylor, A., LoSciuto, L., Fox, M., & Hilbert, S. (1999). *The mentoring factor: An evaluation of Across Ages. Intergenerational program research: Understanding what we have created.* Binghamton, NY: Haworth.
- Vandell, D., Reisner, E., & Pierce, K. (2007). *Outcomes linked to high-quality afterschool programs: Longitudinal findings from the study of promising practices.* Irvin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Washington, DC: Policy Studies Associates. Available at <http://www.gse.uci.edu/docs/PASP%20Final%20Report.pdf>
- White, R. N., Reisner, E. R., Welsh, M., & Russell, C. (2001). *Patterns of student-level change linked to TASC participation, based on TASC projects in Year 2.* Washington, DC: Policy Studies Associates.
- Weiss, F. L., & Nicholson, H. J. (1998). Friendly PEERsuasion against substance use: The Girls Incorporated model and evaluation. *Drugs & Society*, 12(1/2), 7-22.
- www.afterschool.org
- www.inca.org.uk
- www.skolverket.se/english/system/childcare\_schoolchildren.shtml
- www.stockholm.de
- [www.fh-bielefeld.de/fb2/studium/info/htm](http://www.fh-bielefeld.de/fb2/studium/info/htm).

*Memo*



# 빈곤아동 현실과 지역아동센터 현황

이 경 립 대표(부스러기사랑나눔회)

## I 빈곤아동 실태 및 보호현황

최저생계비 이하 아동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6년 다소의 감소가 있었으나 큰 차이 없이 10 -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06년 현재 연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아동수가 약 97만 명(절대아동빈곤율 8.9%)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 아동 수는 약 147만 명(상대아동빈곤율 13.5%)에 이르고 있으며, 차상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비율은 전체의 3.7%, 차차상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비율은 약 7.1%로 전체 아동의 19.7%인 약 224만 명의 아동이 빈곤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표1-1> 빈곤아동 수 추이

(단위:%,명)

년도	전체아동수	절대빈곤아동		상대빈곤아동	
		비율	추정아동수	비율	추정아동수
2003	11,478,537	9.4	1,078,982	13.7	1,572,559
2004	11,297,516	9.0	1,016,776	14.1	1,592,949
2005	11,105,069	10.0	1,110,506	14.1	1,565,814
2006	10,903,869	8.9	970,444	13.5	1,472,022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 빈곤통계연보

### 1. 빈곤가구 내 다양한 가족유형의 증가

#### 1) 한부모가족<sup>1)</sup>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8.6%가 한부모 가구로 이혼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차 증가되고 있음. 아울러 2006년 빈곤가구 내 한부모가족<sup>2)</sup>의 수는 약 13.4%, 2007년에는 8.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의 증가율이 약 16.0%, 10.9%로 증가율이 더 큼을 알 수

1) 한부모가구는 가구특성상 한쪽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2) 빈곤가구 내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중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법 대상 중 한부모가족



있다.

한부모가족의 기능적 어려움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해 직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동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양부모가 함께 하는 양육 및 생활에 대한 책임을 혼자 수행함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소진된 상황에서 자녀관계에서의 긴장 및 갈등 문제를 유발하기 쉬우며, 자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기능이 약화되기 쉽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내의 아동은 더욱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2> 저소득 한부모 가족 증감추이

(단위 : 세대, 세대원수)

구분		2005(A)	2006(B)	2007(C)	증감(C-B)	증감율(%)
총 계	세대수	123,666	140,188	151,520	11,332	8.1%
	세대원수	334,066	374,094	404,446	30,352	8.1%
모자가족	세대수	99,671	112,347	120,656	8,309	7.4%
	세대원수	268,975	299,430	321,837	22,407	7.5%
부자가족	세대수	23,995	27,841	30,864	3,023	10.9%
	세대원수	65,091	74,664	82,609	7,945	10.6%

출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07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 2) 조손가정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정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0.36%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아래 표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그 수가 65.1%나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구의 고령화, 가족해체의 증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가족분리 등의 요인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미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조손가정의 약 40.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에 속해있어 그 심각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가정학습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표1-3> 조손가정 수

(단위 : 가구)

연도	1995	2000	2005
가구 수	35,194	45,225	58,101

출처: 통계청, 2007

## 3) 결혼이민자 가정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의 수는 약 44,258명으로 어린연령층의 아동수가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12,319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3.7%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8.4%, 2006년에는 39,690건으로 11.9%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38,491건(11.1%)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국제결혼 중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도 자녀양

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은 경제적 능력이 낮고 맞벌이의 비율도 높아 결혼이민자가정의 아동은 방임의 가능성이 높고, 설동훈(2006)이 실시한 실제 이민자조사에서 자녀양육방법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45.8%밖에 되지 않았으며, 양육자 없이 아이 혼자 지낸다고 답한 비율이 38.1%로 조사되었다.

**<표1-4> 결혼 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만6세 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 수	44,258명	26,445명	14,392명	2,080명	1,341명
비 율	100%	59.8%	32.5%	4.7%	3.0%

출처: 행정자치부, 2007

#### 4) 결식아동의 증가

IMF 이후 결식아동은 급격한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9년 학교무료급식지원 대상자가 1만1천명 수준에서 15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그 지원대상이 63만명(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급식지원도 민간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먼저 시작된 이후 2000년부터 대통령 특별지시로 1만5천명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 말 25만 명 지원으로 그 지원 대상을 대폭 상향조정하며 2008년 현재까지 25만 5천명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급식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현행 급식지원체계는 학기 중 중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석식지원과 방학 중 중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의 이원화 되었으며 그 지원대상의 수에 있어서도 부처 간 약 2배가량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결식아동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급식지원대상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으로 그 지원 대상에 있어서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상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상은 0세부터 18세까지의 더 포괄적 범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아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아동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등 정확한 결식아동의 수 파악하기 어렵다.

2005년부터는 결식아동의 지원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자체로 완전 이양함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지원의 규모, 지원 방식, 지원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식아동은 어느 지자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평등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현황

빈곤, 한부모 가족 및 노손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내 아동·청소년, 결식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일직선상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포괄적인 대상층을 포함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아동(중위소득 50%)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에 대비하여 교육복지 통합적 안전망에 해당하는 8개 사업이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현황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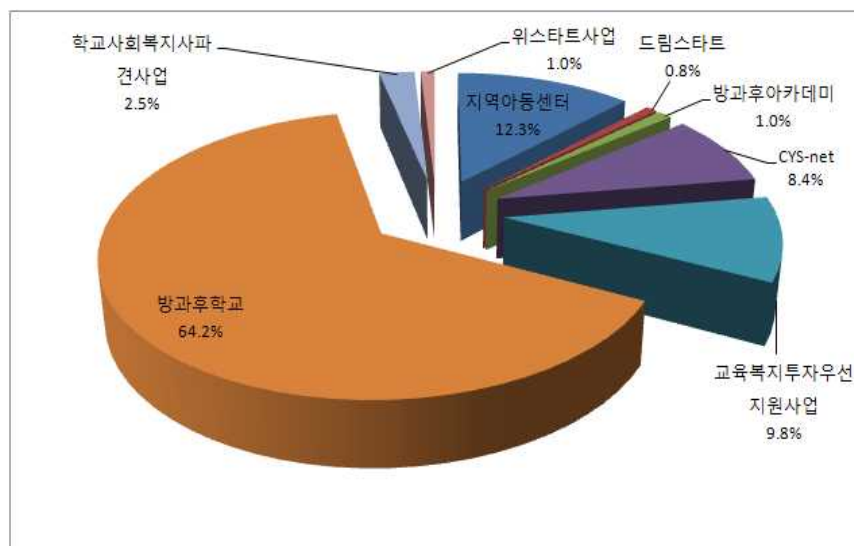
**<표1-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호현황**

사업명	이용자수	사업명	이용자수
지역아동센터	76,229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60,897명
드림스타트	4,900명	방과후학교	396,979명
방과후아카데미	6,310명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15,255명
CYS-net	52,000명	위스타트사업	6,000명
8개사업 이용자수 872,433명			

주)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기준  
 방과후아카데미, CYS-net - 구,국가청소년위원회, 2007년 기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한국교육개발원, 2007년 기준, 집중지원학생수 (전체이용자수326,826명)  
 방과후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기준, 초등보육 및 바우처, 멘토링 참여자 수  
 위스타트 사업 - 2007년 사업지역 20개 × 300명(사업계획량)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 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07년 기준, 집중지원학생수 (전체이용자수78,545명)

- 2007년 0-18세까지의 인구수 11,320,780명에 상대적 아동빈곤률 13.5%를 적용하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1,528,305명으로 보았을 때 8개 사업이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수는 872,433명으로 약 655,872명(42.9%)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추산함. 하지만 각 사업들이 중복되는 아동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8개 사업별 보호현황을 살펴보면, 방과후학교의 이용자 수 396,979명으로 전체 보호인원의 64.2%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의 12.3%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었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집중지원학생수는 60,897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 사업별 보호현황**

## II. 지역아동센터 현황

### 1. 운영주체별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전체의 43.9%(1,322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종교단체가 29.9%(902개소), 사회복지법인이 10.0%(302개소), 재단법인이 6.0%(180개소), 사단법인이 4.1%(12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2-1>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및 지역형태

구분		개소(%)
운영주체	시민단체	97(3.2)
	재단법인	180(6.0)
	사단법인	123(4.1)
	사회복지법인	302(10.0)
	종교단체	902(29.9)
	개인	1,322(43.9)
	지자체	6(0.2)
	기타	81(2.7)
	전체	3,013(100)

\*2008년12월현황.지역아동정보센터. 보건복지가족부자료

### 2. 설립시기별 현황

법제화 이전,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지역아동센터(구.공부방)가 총 321개소(4.3%)에 불과하였으나, IMF 이후 2000~2003년에 개소한 지역아동센터가 510개소(17.0%)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법제화 이후 2004~2005년에는 933개소(31.0%), 2006~2007년 942개소(31.3%)로 법제화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이 늘어났다.

<표2-2. 설립시기별 현황>

구분		개소(%)
법제화이전	1998년이전(IMF이전)	132(4.3%)
	1998년~1999년	121(4.0%)
	2000~2003년	510(17.0%)
	소계	763(25.3%)
법제화 이후	2004년~2005년	933(31.0%)
	2006년~2007년	942(31.3%)
	2008년~현재	375(12.4%)
	소계	2,250(74.7%)
전체		3,013(100.0%)

출처: 2008년12월.지역아동정보센터.보건복지가족부자료

### 3. 국고지원 및 신고현황

- 국고지원의 경우 '04 454개소(50.7%) → '05 789개소(46.2%) → '06 881개소(43.5%) → '07 1,859개소(71.0%) → '08 2,619개소(86.9%)로 증가하였다.
- 신고현황은 '04 340개소(38.0%) → '05 1,377개소(80.6%), → '06 1,869개소(92.2%) → '07 2,568개소(98.1%) → '08 상반기 2,756개소(98.1%)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신고하였다.
- 미신고현황은 '04 555개소(62.0%) → '05 332개소(19.4%), → '06 158개소(7.8%) → '07 50개소(1.9%) → '08 상반기 54개소(1.9%)로 점차 감소하였다.
- 예산액에 있어서도 2004년 8억에서 2008년 261억으로 증가하였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이다.

**<표2-3> 년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신고현황 규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고 지원	개소수	454	789	881	1,859	2,619
	개소당(만원)	67	200	200	200	220
	예산(억원)	8	49	98	206	261
국고 미지원		441	920	1,146	759	394
신고		340	1,377	1,869	2,568	2,977
미신고		555	332	158	50	36
총 개소수		895	1,709	2,027	2,618	3,013

출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 4. 이용아동현황

이용아동의 경우 '04년에 약 23,000명에서 '08년 약87,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이 '04년 18,348명(78.6%) → '05년 34,617명(79.0%) → '06년 46,575명(78.7%) → '07년 61,044명(80.1%) → '08년 69,135명(79.2%)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04년 3,435명(14.7%) → '05년 6,087명(13.9%) → '06년 7,941명(13.4%) → '07년 10,637명(14.0%) → '08년 13,242명(15.2%)이 이용하며 초등학교를 마친 중학생들의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4> 전체 이용아동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취학 아동	1,564	6.7	3,023	6.9	4,133	7.0	4,127	5.4	4,585	5.2
초등 학생	저학년	78.6	34,617	79.0	25,149	42.5	32,867	43.1	35,972	41.2
	고학년				21,426	36.2	28,177	37.0	33,163	38.0
중·고등 학생	3,435	14.7	6,087	13.9	7,941	13.4	10,637	14.0	13,242	15.2
기타	-	-	55	0.2	523	0.9	421	0.6	329	0.4
전체	23,347	100.0	43,782	100.0	59,172	100.0	76,229	100.0	87,291	100.0

출처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 5. 경제적 상황별 이용아동 현황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수급권 아동이 31.7%(27,698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차상위(저소득)아동이 30.7%(26,797명), 일반아동 중 학교중식을 받지 않는 아동이 21.0%(18,335명), 학교중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16.6%(14,461명)으로 나타났다.

한 센터 당 평균 아동수는 29.0명이며, 이 중 수급권아동은 9.2명, 차상위 아동은 8.9명, 일반아동 중 학교중식을 받는 아동은 4.8명, 일반아동 중 학교중식을 받지 않는 아동은 6.1명이다.

**<표2-5> 경제적 상황별 이용아동 현황**

구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일반 아동		
				소계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급식비 미지원대상
인원(명)	87,291	27,698	26,797	32,796	14,461	18,335
비율(%)	100.0	31.7	30.7	37.6	16.6	21.0

출처: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 6. 급식실시 현황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04년도는 340개소(38.0%)의 7,955명(34.1%)에서 '05년 1,138개소(66.6%)의 21,538명(49.2%), '06년 1,765개소(87.0%)의 46,703명(78.9%), '07년 2,284개소(87.2%)의 73,478명(96.4%), '08년 2,826개소(93.8%)의 70,870명(81.2%)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급식 미실시 센터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2-6> 급식실시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실시	340	38.0	1,138	66.6	1,765	87.0	2,284	87.2	2,826	93.8
미실시	555	62.0	571	33.4	264	13.0	334	12.8	187	6.2
전체	895	100.0	1,709	100.0	2,029	100.0	2,618	100.0	3,013	100.0

출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 7. 년도별 종사자 현황

2007년 전체 2,6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총 종사자 수는 6,058명으로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1명인 2,618명이며, 생활복지사의 경우 남자는 471명(7.8%), 여자는 2,969명(49%)이다. 2008년에는 전체 3,0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총 종사자 수는 6,840명이며, 2007년도 마찬가지로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1명인 3,013명이며, 생활복지사의 경우 남자는 543명(7.9%), 여자는 3,284명(48.1%)이다.

<표2-7> 종사자 현황

구 분	계		시설장		생활복지사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7년	6,058	100.0	2,618	43.2	471	7.8	2,969	49.0
2008년	6,840	100.0	3,013	44.0	543	7.9	3,284	48.1

출처: 2007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 8. 사회적 일자리 아동복지교사 현황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일자리로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분야의 복지교사가 2007년도는 총 2,757명, 2008년도 총 2,961명이 파견되었다.

## 9. 2008년 지역아동센터의 평균상<sup>3)</sup>

###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태

이용 아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 15명, 여아 16명으로 총 31명</li> <li>- 하루 8.8시간 이용</li> <li>- 91.6%가 초등학생 (8세~13세)</li> <li>- 일반가정 10명, 급식지원 받는 일반가정 2명, 수급권가구 9명, 차상위 가구 9명의 아동이 이용</li> <li>- 양부모가정 16명, 모자가정 5명, 부자가정 4명, 조손가정 3명의 아동이 이용</li> <li>-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2명, 장애아동 2명, 재혼가정 아동 3명이 이용</li> </ul>
일반적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42.6%, 법인 25.7% 운영</li> <li>- 도시 67.7%, 농촌 32.3% 위치</li> <li>- 2004년 이전 29.6%, 2004년 이후 70.4% 설립</li> <li>- 시설 당 평균 면적 146㎡</li> <li>- 지상 1층 42.7%, 지상 2층 36.9% 위치</li> </ul>
설비 및 기자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 27개, 컴퓨터 4.8대, VTR 0.8대, 프로젝터 0.3대, 캠코더 0.2대, 카메라 0.8대 보유</li> <li>- 전기전용조리시설 86.8%, 환기시설 68.3%, 소독기 68.6%, 정수기 85.9%, 냉장고 90.6%, 에어컨 78.5%, 냉온풍기 36.4%, 난로 52.8%, 선풍기 91.6% 보유</li> <li>- 화장실 1.7개, 소변기 1.3개, 양변기 1.2개, 좌변기 1.2개, 개수대 1.5개, 샤워기 0.8개 보유</li> </ul>
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지도(91.6%), 생활지도(93.4%), 숙제지도(91.9%), 학습지도(97.8%) 문화체험(92.7%), 상담(95.5%) 등의 프로그램을 주로 실시</li> </ul>

3)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자료 발췌(38쪽~41쪽).이경림외. 보건복지가족부

운영 시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당 5.6일 운영</li> <li>- 토요일 76.5%, 일요일 37.1%, 야간 42.6% 운영</li> <li>- 학령기별 시작시간과 마침시간</li> <li>· 미취학 아동 : 오후 1시 10분~6시 40분</li> <li>· 초등학교 저학년 : 오후 12시 50분~6시 40분</li> <li>· 초등학교 고학년 : 오후 2시~7시</li> <li>· 중학생 : 오후 4시~8시 10분</li> <li>· 고등학생 : 오후 4시 30분~8시 30분</li> </ul>
급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한 끼 이상 89.2% 제공</li> <li>- 지역아동센터 73.6% 정부 지원</li> <li>- 아동 25.6명이 평균 3,100원 지원</li> </ul>
지역사회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지역아동센터(2,179개소), 동사무소(1,475개소), 기업(1,376개소) 학교(816개소), 병원(811개소), 보건소(774개소)의 순으로 연계</li> </ul>

## 2) 종사자의 상태

시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47.7%, 여성 52.3%</li> <li>- 평균 연령 45세</li> <li>- 개신교 70.9%</li> <li>- 평균 센터 근무 경력 3년</li> <li>- 사회복지사 자격증 61.1%, 보육교사 자격증 21.2%</li> <li>- 주당 평균 30시간 근무</li> <li>- 연간 휴가 4.8일</li> <li>- 월 급여 88만 9천원</li> <li>- 4대 보험 가입 약 40%</li> <li>- 연간 17시간 교육 이수</li> </ul>
생활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12.5%, 여성 87.5%</li> <li>- 평균 연령 37세</li> <li>- 대졸 75.9%</li> <li>- 개신교 70.9%</li> <li>- 평균 현재 센터 경력 1년 4개월</li> <li>- 사회복지사 자격증 46.5%, 보육교사 25.9%</li> <li>- 연간 휴가 6.6일</li> <li>- 월 급여 84만 5천원</li> <li>- 4대 보험 가입 약 60%</li> </ul>
재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수입 4,733만원</li> <li>· 정부 지원 운영비 2,019만원</li> <li>· 정부 지원 급식비 1,210만원</li> <li>· 민간기관 지원금 532만원</li> <li>· 자체후원금 607만원</li> <li>- 인건비 1,537만원, 운영관리비 1,507만원, 급식비 1,318원 지출</li> <li>- 정부가 아동 1인당 90만원 지원</li> </ul>



### 3) 아동의 발달 상태

신체발달	- 남아 키 128.5cm, 몸무게 28.1kg - 여아 키 127.9cm, 몸무게 26.9kg
이용현황	- 1년 미만 이용 34.4%, 1년~2년 미만 이용 28.1% - 주당 5일 이용 96.4% - 평균 평일 4시간 40분 이용 - 일반 학원 19.5% 이용, 방과후학교 29.4% 이용 - 귀가 후 49.8% 주양육자 보호, 29.6% 형제끼리 있음, 12.4% 혼자 있음.
사회능력	- 사회성 5.71점(점수범위 0~8점) - 학업수행 3.83점(점수범위 0~5점) - 총사회능력 9.52점(점수범위 13점)
건강현황	- 아동의 29.8%가 질병이 있음 (안경착용 30.6%, 치과 질환 19.6%, 비만 15.8%, 피부 질환 12.7%)
심리사회적 문제	- 불안/우울, 비행, 공격성의 표준점수 환산 값이 각 53.74점, 55.93점, 51.56점으로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 비율이 약간 높음

## Ⅲ.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청소년 현황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법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0-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전국의 3,000여개 지역아동센터의 10만 이용아동의 현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가구 내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를 통해서 7,500명 아동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족형태를 보면 양부모가정 47.2%, 모자가정 17.8%, 부자가정 16.2%, 조손가정 12.9%, 기타 5.9%로 나타나, 양부모가정이 가장 많이 차지하지만,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둘째, 이용자 가정의 경제상황은 기초생활수급권 가정이 가장 많아 32.0%, 일반가정 30.1%, 차상위 가정 20.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7.9%로 나타나, 학교중식지원자 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이 35.1%, 빈곤가정이 60.7%로 드러났다.
- 셋째, 이용자 가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36.3%, 100만원~150만원 미만 이 32.4%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 월평균 수입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이며 이용아동 가구의 한 달 수입의 평균은 120.9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빈곤 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 넷째, 이용아동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도 49.8%만이 주양육자의 보호를 받으며 50.2%의 아동들은 야간 또 다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의 일반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가장 빈곤·소외계층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 현황을 고찰하는 것이 바로 빈곤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진단하는 기본적 척도가 될 것이다.

### 1. 아동·청소년 신체적 건강 실태<sup>4)</sup>

2008년 6월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조사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3,274명 신체적 건강상태를 크게 키, 몸무게, 비만도, 생활습관, 아동 질병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키, 몸무게 : 이용아동의 키와 몸무게를 아동 표준발육곡선 50%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키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 평균 또래 아동들보다 작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8세에는 3.47cm차이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10세 5.72cm, 14세 7.69cm로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차이는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몸무게의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적게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만정도 : 남녀 모두 저체중인 경우가 각각 70.19%(725명), 79.78%(109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반면, 비만인 경우도 각각 0.58%(6명), 0.15%(2명)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저체중이 많았고, 고등학생은 정상체중이 더 많았다. 여아는 학년별로 저체중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아 역시 남아와 마찬가지로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 매우 낮게 나타났다.
- 아동질병

n=3,274

<표3-1>

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	
	있다(한다)		없다(안한다)		있다(한다)		없다(안한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체건강(질병정도)	안과질환	442	16.8	2189	83.2	100	18.2	449	81.8	**
	호흡기질환	939	35.6	1695	64.4	208	37.9	341	62.1	
	심장질환	726	27.7	1899	72.3	157	28.6	392	71.4	
	신장질환	243	9.3	2379	90.7	42	7.7	504	92.3	
	치과질환	436	16.6	2191	83.4	92	16.8	457	83.2	
	위장질환	304	11.5	2330	88.5	105	19.1	444	80.9	***
	피부질환	658	25.1	1963	74.9	116	21.2	432	78.8	*
	잡은두통	381	14.5	2244	85.5	130	23.7	419	76.3	***
	빈혈	530	20.2	2089	79.8	188	34.2	361	65.8	***

\*\*\* p<.001, \*\* p<.01, \* p<.05

4) 본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실태 및 주양육자 양육환경조사 (2008. 12)” 연구자: 이경림, 박영숙, 황정아, 장현정의 연구내용 중 신체적 건강실태를 재구성하여 발췌하였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정도를 조사해보았더니 안과질환은 초등학교 16.8%, 중학교 18.2%가 가지고 있었으며, 호흡기 질환은 초등 35.6%, 중학교 38.9%가 심장질환은 초등 27.7%, 중학교 28.6%, 신장질환은 초등 9.3%, 중·고등 7.7%, 치과질환은 초등 16.6%, 중학교 16.8%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위장질환으로는 초등 11.5%, 중학교 19.1%, 피부질환은 초등 25.1%, 중·고등 21.2%, 잦은 두통은 초등 14.5%, 중·고등 23.7%, 빈혈은 초등 20.2%, 중학교 34.2%가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서 빈곤·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지원 대책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생활습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생활습관을 보면 흡연 아동들은 중학교 3.8%, 읍·면 초등학교 4.7%, 중학교 10.1%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초등·중학교 학년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아동들은 36.9%, 중·고등학생은 44.6%로 나타났으며 규칙적 식습관을 가지지 않은 초등학교 35.7%, 중·고등학생이 42.6%로 나타나 결식과 올바른 식생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운동은 초등학교 18.4%, 중·고등학생 18.7%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생활습관은 술, 담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며 중학교 평균 음주율과 흡연율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침결식비율은 일반 초등학교 8.3% 중학교 15.4%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아침식사 결식 대책이 요구된다. 규칙적인 식습관도 1/3이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결식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가 요청된다.

## 2.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현황<sup>5)</sup>

2008년 6월 -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7,6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K-CBCL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중 불안/우울 척도, 비행 척도, 공격성 척도의 원점수로 산출하였다. 14개의 불안/우울 척도는 평균 5.46점, 13개의 비행 척도는 2.65점, 20개의 공격성 문항에서는 7.97점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5) 본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2008.12) "지역아동센터 전국 실태조사" 연구자 : 이태수, 김성경, 박은미, 이경림, 이향란의 연구 내용 중 이용자의 사회능력 및 심리 사회적 발달현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음.

<표3-2>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

단위: 점

구분		평균(SD)	점수범위
심리정서문제	불안/우울	5.46(5.31)	0~28
행동문제	비행	2.65(2.99)	0~26
	공격성	7.97(7.90)	0~40

\* K-CBCL척도의 원점수

## 2) 재표본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표3-3> 재표본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단위: 명(%)

구분		70점 미만	70점 이상	평균(SD)
심리정서문제	불안/우울	1754명(87.7%)	246명(12.3%)	53.74(12.35)
행동문제	비행	1757명(87.9%)	243명(12.2%)	55.93(11.22)
	공격성	1776명(88.8%)	224명(11.2%)	51.56(13.64)

\* K-CBCL척도의 표준점수(T점수)

재표본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K-CBCL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중 불안/우울 척도, 비행 척도, 공격성 척도의 원점수를 표준점수(T점수)로 환산하여 각 수준과 각각의 평균을 알아보았다. CBCL에 의해 측정된 청소년의 문제에서는 총 문제 및 하위 문제의 표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청소년은 임상적 의미를 갖는데, 어떤 사회에서도 70점 이상을 기록하여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의 비율이 5~10% 정도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표준점수로 볼 때, 12.3%는 임상적 의미를 갖는 심리정서문제를, 비행에서는 12.2%, 공격성에서는 11.2%가 임상적 의미를 갖는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별 평균을 보면, 심리정서문제의 평균은 53.74점이며 비행의 평균은 55.93점, 공격성은 51.56점으로 나타났다. Achenbach(1991)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심리정서문제 및 행동문제의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현황

부스러기사랑나눔회 1:1 결연아동 748명의 주거상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자기는 불과 17%에 이며 월세 47.6%, 전세 13%이며 무허가나 비닐하우스도 8.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실의 경우 실내 화장실 72.2%, 실외화장실 27.8%로 주거상황이 불안한 것을 알 수 있다.

6) 심리사회적 적응은 이용아동 표본 7,689명 중 무작위 방법으로 2,000명을 재표본 추출하여 K-CBCL척도의 표준점수로 분석하였다.

<표3-4> 주거상황

주거 구분	아동수	퍼센트
자가	127	17
월세	356	47.6
전세	100	13.4
영구임대	48	6.4
무상임대	29	3.9
싯터	19	2.5
무허가, 비닐하우스 등	63	8.4
미파악	6	0.8
총	748	100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는 한국에 있는 빈곤가족 아동에게도 다가왔다. 2009년 1월과 2월 경제위기로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동들이 5,742명 늘어났고 대기자는 4,378명(센터당 평균 5.5명)으로 10.126명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이유로는 부모실직(23.2%), 부모의 부도와 파산(9.6%),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입감소(13.3%), 근무시간 단축 및 공장가동 중단(11.9%), 자영업의 수입감소(18%)로 실직.파산 등 경제위기가 76%이며 이로 인한 가족해체가 24%로 보고하고 있다(강명순 의원실, 2009).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1998년 IMF 때보다 2008년을 넘어 2009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은 더욱더 절망적이고 힘겨움이 느껴진다.

## IV. 지역아동센터 정체성<sup>7)</sup>

### 1.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카두신(Kadushin)에 의하면,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여타 서비스와 달리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서비스 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기능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지적 서비스의 종류로는 주요 사회복지기관은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소 등이며 가족구성원의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가족치료방법 등을 들 수 있다.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 : 지지적 서비스와는 달리 가정내에서 전개되는 서비스 형

7)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KB아카데미. 이경림외. 2009 p42~48발췌

태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인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충적 서비스의 종류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방과후 서비스, 피학대 아동 보호사업, 가정지원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다.

(3) 대리서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s) :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카드신의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보충적 서비스와 지지적 서비스의 정체성을 가지며 아동이 가족 내에서 보호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2. 지역아동센터의 법적인 정체성

(1) 헌법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제 2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성인을 포함한 아동을 포함하며 지역아동센터의 탄생배경도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권’에 근거한다.

(2)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양육의 책임이 아동의 부모나 가족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지역사회 성인)에게 있음을 근거하고 있는 공적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의 법적인 정체성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sup>8)</sup>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

- 
- 8)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분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 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권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11개의 아동시설의 종류가 있다. 그 중 아동생활시설이 아닌 아동이용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3) 이명박 정부에서 아동·청소년 부처 통합에 따른 법률 통합을 위해 2008년 11월 국회에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에 따른 법률을 제출해 놓았으며 이법은 기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정비하여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정책으로써 기능별로는 활동, 복지, 보호분야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법률은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복지법 3개 법이다. 그중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복지법”에 자리하고 있다.

이법의 법률이 개정될 경우 아동·청소년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현재 18세에서 19세 미만의 사람까지를 포함하게 되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나가기 전 자립과정에 있는 19세미만의 아동의 복지제공이 가능해진다.

제6장 아동·청소년의 복지수행기관으로서 “제3절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제70조(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1항.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청소년복지생활시설과 아동·청소년복지이용시설로 구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항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시설로서 아동·청소년상담소, 지역 아동·청소년센터, 아동·청소년복지관 등이다.

제70조 3항 2호 : 지역아동·청소년센터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 활동기회 제공,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3. 아동권리 협약으로 본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아동권’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보면 전 세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근거한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전 세계의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1990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 뿐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과 54개조로 이루어져있는데,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달과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 (1)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 발달의 권리 :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3) 보호의 권리 :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4) 참여의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

## 질 권리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은 이용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며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을 보장해주는데 근거한다.

### 4. 사회적 가정으로써의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1318해피존 이용 청소년 712명에게 설문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 가정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정의 기능을 크게 경제적 부양기능, 정서적 부양기능, 교육 및 사회화 기능, 여가 및 휴식기능으로 보았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가정의 기능을 제공받고 있다고 위의 조사는 밝히고 있다.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경제적 부양 기능과 유사한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1318해피존 기능은 생활공간의 적절성과 식생활 해결 및 만족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1318해피존 이용자의 응답을 보면, 공간의 안전성, 청결함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높았으며, 이용기간에 따라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양과 질에서 모두 높은 편이었으며, 건강의 변화에 대한 체감 정도는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둘째, 가족의 정서적 부양기능에 해당하는 가족 간 대화소통, 가족 일에 대한 관심, 개인문제 공동해결 등의 내용을 해피존 기능에 적용시켜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돌봄, 자부심, 결속감, 유대감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돌봄, 자부심, 결속감, 유대감 문항의 평균 점수가 모두 3.6 이상이었다. 집단별 비교를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남자보다 여자가, 자부심은 6개월 미만 이용자보다 6개월 이상 이용자가 평균 점수가 높았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또한 정서적 부양기능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 역시 정서·평가·정보적 측면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해피존은 비교적 청소년들이 만족할 만한 정서적 부양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로서 일상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의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을 보면, 교육의 적절한 배분, 부모 꿈 대리 성취, 그리고 사회화 교육 등이 해당된다. 해피존은 일상적인 생활교육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해피존의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을 보기 위해 생활교육 영역인 언어·식사·소비습관 개선 정도, 표현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정도, 컴퓨터 게임시간 축소, 진로정보 및 조언 정도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표현능력 향상과 진로정보 및 조언 정도는 이용기간, 즉 6개월 미만 이용자와 6개월 이상 이용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언어습관과 컴퓨터 게임 축소 정도는 이용일수, 즉 3일 미만 이용자와 3일 이상 이용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해피존의 이용기간이 길고 이



용일수가 많을수록 생활습관의 개선과 사회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족의 여가 및 휴식 기능 중 일부가 해피존의 다양한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해피존에 대한 느낌을 묻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즐겁다(신이 남, 재밌음 등)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504명(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255명(35.8%)이 편하다(따듯함, 포근함 등), 152명(21.3%)이 행복하다, 39명(5.5%)이 가족 같다, 그리고 8명(1.1%)이 배려한다고 대답하였다. 해피존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체험에 참여하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해피존의 청소년들은 문화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며, 그 안에서 삶의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재충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약화된 가족의 경제적 부양 기능, 정서적 부양 기능,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여가 및 휴식 기능과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1차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으로서 기능하지만, 이용자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개입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별 해피존 센터를 넘어 지역 사회 안에서 빈곤·소외 지역 1318세대 지원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관으로서의 해피존 뿐만 아니라 해피존의 1318세대가 지역사회의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지역아동센터 1318해피존은 지역사회에서 약화된 가족기능을 지원하고 보완하면서 1318세대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1차 지원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매개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상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

## <참고문헌>

- 강명순(2007),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국회 정책자료집.
- 이경림(2007)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림(2007).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지역아동정보센터.
- 이경림 외(20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실태 및 주양육자 양육환경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지역아동정보센터
- 이경림 외(2009). 지역아동센터의 이해. KB아카데미.
- 이태수, 최돈민, 이경림(20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방안. 충남교육청 연구용역. 미발행보고서
- 이태수, 이경림 외(2008). 지역아동센터 전국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p288-p372
- 지역아동정보센터.보건복지가족부(2009).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Memo*



# 소개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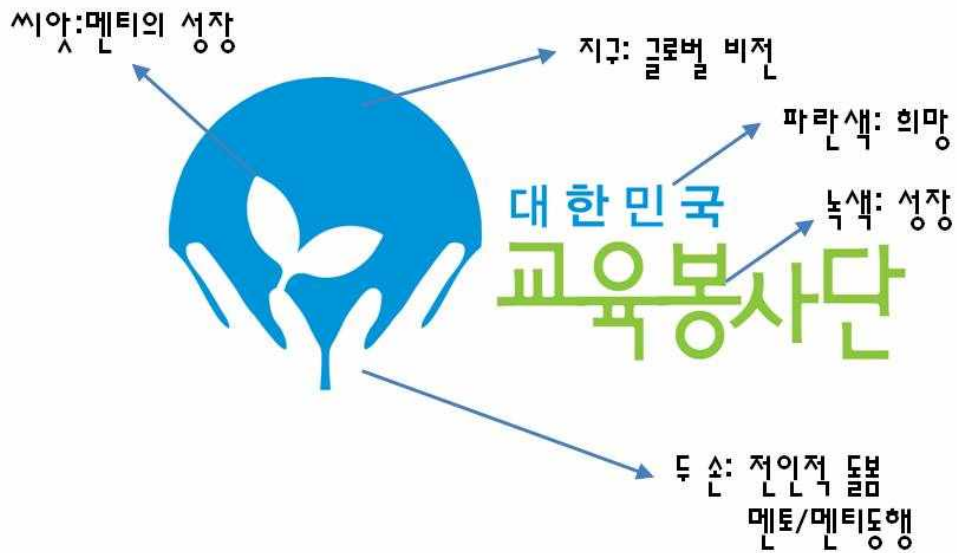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2009년 6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 엠블럼 소개



2

## Executive summary

###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자존감·사회성·학습능력 낮음
- 청년실업을 상승과 청년 시민의식 부재
- 불안감 높은 무한경쟁사회

### 사업의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전인적 돌봄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방과후 씨앗학교
-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 교사 양성
- 씨앗학교 커리큘럼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사업의 기대효과

-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체성 발견, 재능개발, 학습역량 강화
- 교사 청년들의 사회적 리더십 함양
-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 확산
- 사회통합에 기여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



3

## 문제인식



### 1. 교육기회 격차 심화

- 부모(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70만 명 (14.9%)
- 취약계층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성, 학습부진

### 2.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청년

극심한 입시전쟁 후, 무한취업경쟁

“지면 안돼...”



4

##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존재이유

### WHY ?

- 1. 복지사각지대 존재:**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여전히 다수.
- 2.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필요:** 방과후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가 양적으로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높은 수준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
- 3. 여전히 중요한 사회투자:** 범죄예방, 사회복지비용 절감, 세금납부 증가, 질 높은 노동력 증가 등 사회적 투자효과 있음.



5

## 비전과 미션

### Vision

나눔과 동행의 교육실천으로 다음 세대의 리더인 청년교사와 취약계층 학생을 사회적 리더로 양성하고 교육봉사운동을 확산시킨다.

### 장기 Vision

2009년 시범사업 성공 및 비전공유

2010년 사업 안착 및 국제심포지움

2011년 종합평가 및 씨앗학교페스티벌

2012년 지역 및 해외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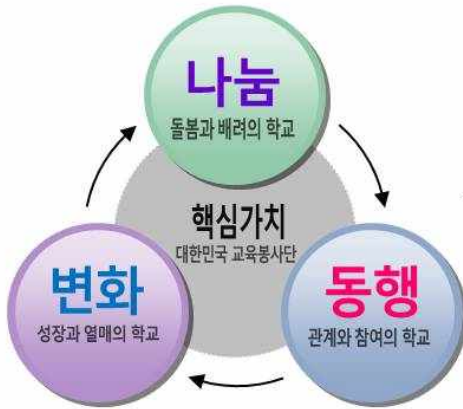
### Mission

정체성 발견, 재능 개발, 학습지원 등 전인적 돌봄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당당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 핵심가치



'나'를 나눔으로 '너'를 채운다.

학생, 교사, 가정, 학교, 교회, 기업, 정부가 각자 가진 시간, 물질, 재능, 마음을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룬다.

'나'와 '너'가 동행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전인적 동행을 이룬다.

'나'를 통해 '너'가 변화한다.

나눔과 동행을 통한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봉사운동을 확산시킨다.



7

## 주요 사업

### 사업 1.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씨앗학교 운영

- ① 학교, 교회에서 방과후(pm 5-8시) 씨앗학교 운영.
- ② 정체성 발견, 재능개발, 학습지원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 ③ 학교-교회-기업-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협력.

### 사업 2. 청년 멘토링/튜터링 교사 양성

: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양질의 교사 양성 (리더십개발, 중학생이해, 멘토링 등 훈련)

### 사업 3. 씨앗학교 커리큘럼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전국에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 보급



8

## 주요 전략

- 체계적인 교사양성
- 다각적 자원확보
- 창의와 주도성
- 통전적 틀봄

을 통한 **양질의 멘토링/튜터링**

- 중학교와 교회에  
교사 파견
- 사각지대 중학생 집중

을 통한 **공교육보완**

- 지역사회 협력  
(학교-교회-기업-기관)
- 전문단체 협력 시너지

를 통한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추구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9

## 기대 효과

**효과1. 학생:** 정체성 발견, 재능개발, 학습능력증진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역량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효과2. 교사:** 봉사의 실천으로 성취감 누림.  
사회적 인식과 이해 증진, 사회적 리더십과 기업시민정신 함양.

**효과3. 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효과4. 사회:**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 확산.

**효과5. 기업:** 기업 이미지 제고, 간접적인 기업투자.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10



## 추진 일정(2009년도)

사업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생커리큘럼개발									
교사훈련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교회 현장 개발									
재정 모금									
교사모집									
교육 세미나 개최									
교사 훈련									
학생모집									
씨앗학교 진행									



11

## 세부 사업 일정 (2009년 7월~12월)

프로그램	일정	비고
교사 비전 워크숍	7월17일-18일	대교단 오리엔테이션, 헌신과 사명감 고취
교사 아카데미	8월1, 8, 22, 29일	4주 동안 토요일 09:00-16:00 체계적인 멘토링 교사 훈련
학생-교사 연캠프	9월11일-12일	대교단 멘토링 학생과 교사들간의 친밀감 형성 및 단합 캠프
대교단 멘토링 진행	9월15일-12월15일	3개월 동안 매주 1회 3시간 멘토링 및 월1회 놀토 야유회 진행
대교단 사업 평가 워크숍	12월18-19일	대교단 교사 마무리 및 평가 워크숍.

\* 2010년 대교단 멘토링 사업을 위한 교사 모집은 2009년 12월에 진행되며, 교사훈련은 2010년 2월 그리고 사업은 3월부터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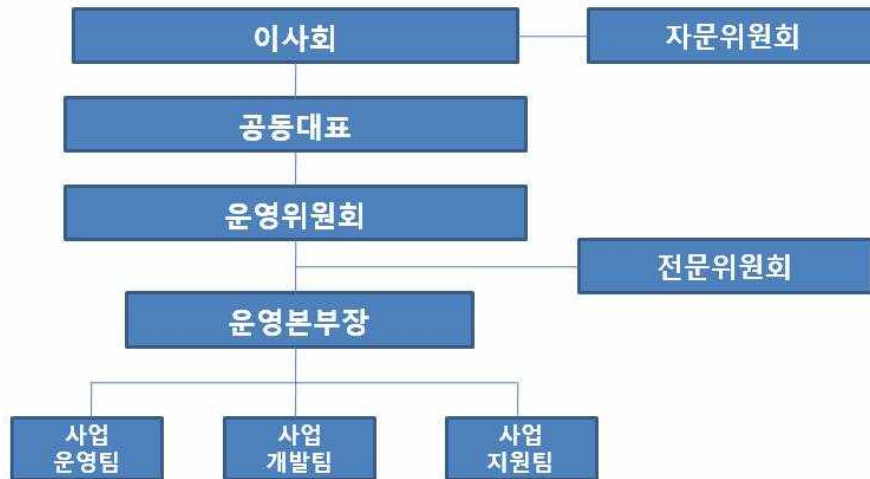
12

## 부록 : 첨부자료



13

## 첨부1. 사업 조직도 및 주관단체



**주관단체:**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한국리더십학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빛누리재단(가나다순)

**협력단체:** 크리스찬라이프센터,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한국교회봉사단), 한국리더십센터(가나다순)



14

## 첨부2 : 국내사례분석



15

## 첨부2 : 국내사례분석

### 정부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등

#### 강점

- ▶ 지역사회 내 빈곤 아동/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아동보호, 안전, 통합적 복지) 충족
- ▶ 아동 접근성이 높은 시설

#### 단점

- ▶ 빈곤아동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현실(전체 빈곤아동 대비 37%만 혜택)
- ▶ 정부(지자체)지원 불충분, 불합리
- ▶ 정원 초과 빈번,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 ▶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통합사례관리, 학습지도 등)
- ▶ 초등생 중심/중고생으로 이어지지 않음

### 민간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희망네트워크, 위스타트 등

#### 강점

- ▶ 지역사회 내 빈곤 아동/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아동보호, 안전, 통합적 복지) 충족
- ▶ 통합적인 사례관리지원과 지역사회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 주도

#### 단점

- ▶ 빈곤아동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현실 (전체 빈곤아동 대비 37%만 혜택)
- ▶ 초등학생 중심
- ▶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자원과 전문인력 확보 필수



16

## 첨부3 : 외국사례분석

### 1. Knowledge Is Power Program

-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립대안학교(1994~)
- 16개교 1만6천명 초중고생
- 교육의 탁월성과 창의성
- 교사 개혁에 중점
- 대학진학률 80%이상 (저소득층 평균 20%)

### 2. Teach For America

- 미국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봉사단체(1990~)
- 명문대학졸업생들, 2년 동안 빈민지역 공립학교에서 교사활동
- 1990-2007 TFA 참여 교사 총 1만 7천명
- 2007년 현재 미국 25개 대도시 공립학교 4,400명 교사 활동



## 첨부4 :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전략

### 강점 Strength

- 질 높은 교사양성을 위한 전문가집단
- 현장에서 검증된 프로그램 도입
- 학생맞춤형 모듈화된 커리큘럼
- 다양한 전문기관들의 긴밀한 네트워크

### 기회 Opportunity

- 교육양극화 심화
- 정부의 대학생 방과후학교 멘토링 사업 지원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 교회의 사회적 섬김 욕구 증대
- 정부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 SO 전략

- 교사양성과 1:1멘토링 도입으로 양질의 멘토링과 튜터링
- 중학교 방과후학교 통해 공교육 보완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초기성공모델 안착



## 첨부5 : 외국사례분석

### [하버드 가족연구 프로젝트 2008]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21<sup>st</sup> century:

미국 방과후학교 10년 활동 분석

#### · 방과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

- ① 학생들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1주일에 1번 이상, 1년 이상)
- ② 프로그램의 질
  -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구성과 슈퍼비전(관리감독)
  - 잘 준비된 교사와 직원
  - 뚜렷한 목표달성에 부합해 짜여진 프로그램
- ③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의 협력



## 첨부6 : 외국사례분석

Budgeting for National Priorit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1775 Massachusetts Avenue, NE Washington, DC 20036-2103  
Tel: 202 797-6000 Fax: 202 797-6004  
www.brookings.edu

**Cost-Effective Investments in Children**

Julia B. Isaacs

BUDGET OPTIONS SERIES  
*How can we balance the budget in the next five years? In a series of papers on budget choices, Brookings analysts examine options for reducing domestic discretionary spending, pruning the defense budget, raising revenues, and investing additional resources in children. An overall deficit reduction plan uses the ideas developed in this series to balance the budget in the next five years. All five papers in this series, a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Budgeting for National Priorities project, can be found at [www.brookings.edu/budget](http://www.brookings.edu/budget).*

PAPER SUMMARY  
Based on a review of benefit-cost evidence, this paper identifies four areas of investment that merit expanded federal funding even in a time of fiscal austerity. America's future economic well-being will benefit from targeted investments to ensure that children have the skills to become tomorrow's adult workers, caregivers, taxpayers, and citizens. Target areas for a package of proposals totaling about \$23 billion annually and \$123 billion over a five-year period are the following:

- High-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for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94 billion over five years).
- Nurse home-visiting programs to promote sound prenatal care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14 billion over five years).
- School reform with an emphasis on programs in high-poverty elementary schools that improve the acquisition of basic skills for all students (\$17 billion over fiv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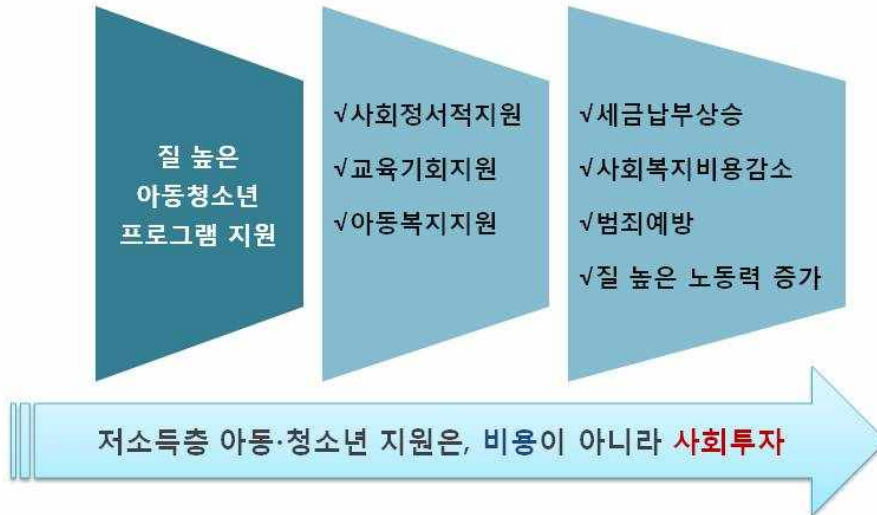
###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 "미국 아동·청소년 투자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분석"에 따르면

- 범죄예방, 아동학대예방, 소득, 세금납부, 복지효과 등 비용대비효과 분석
- 3-4세 유아 지원프로그램(5년 940억 달러)  
: 2배~17배 사회투자효과
- 빈곤지역 초등학교 지원(5년 170억 달러)  
: 2배~7배 사회투자 효과



## 첨부7 : 교육을 위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교육지원은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투자'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1

# 감사합니다!!

# VISION

VISION



22



## 공동주관단체 소개



# 기독교경영연구원

Korean Christian Academy of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기업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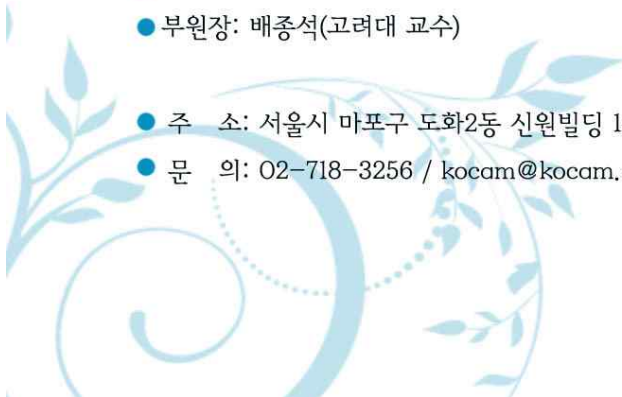
기독교경영연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경영학자, 기업인, 전문인 및 직장인들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모임으로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업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비전을 가지고 96년 3월 출범한 비영리단체입니다.

기독교경영연구원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업경영을 조망하며, 성경적 경영원리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교육활동 및 자문활동을 통하여 기업경영 및 조직운영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탁월성과 윤리성을 갖춘 기업과 조직이 발전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전문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경영연구원에서는 기업 및 비영리조직 경영 개선방안 연구 및 관련도서 출판과 번역과 기독교경영교육 교재개발,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 심포지엄, 워크숍, 기독교인창업대학, 청소년 경영캠프 등의 교육, 국제교류 및 선교 지원, 비영리조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기독교경영포럼, 매년 2회 대학생/직장초년생을 위한 기독교경영아카데미 및 기독교경영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유영구(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 원 장: 한정화(한양대 교수)
- 부원장: 배종석(고려대 교수)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신원빌딩 1층
- 문 의: 02-718-3256 / kocam@koca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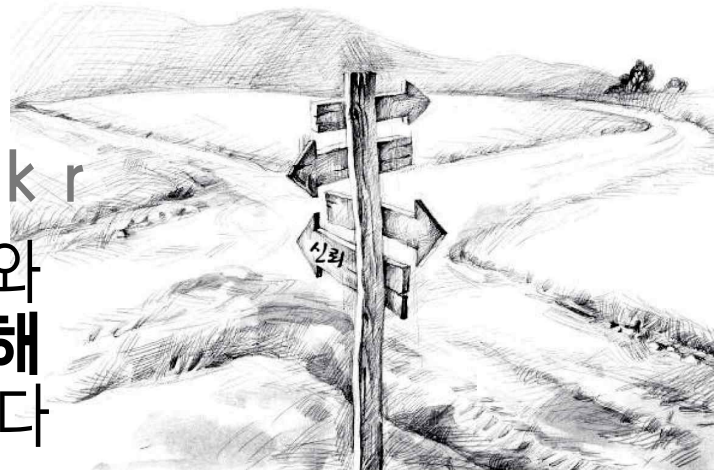
사단법인 **기독교경영연구원**

[www.kocam.org](http://www.kocam.org)



www.trusti.kr

기윤실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지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 (TRUST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 — 2009 기윤실운동의 3영역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울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높은뜻교회연합 대표목사),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은혜(숭실대 교양학부 교수), 조성돈(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공교육 가운데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 좋은교사운동은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학교붕괴 현상'으로 나타나던 2000년,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 가운데 교사가 원인이 되어 생겨난 문제에 대해,  
교사로 인한 아픔과 절망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 대해,  
교사들의 자정과 교육 실천을 통해 응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가정방문, 고통받는 아이와 일대일 결연, 수업평가받기,  
정직·투명운동 등을 통한 개직문화 개선운동,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학교 평가, 대학입시제도 등에 대한 합리적 교육정책 제안,  
각 분야별 교사 모임과 연수를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 운동 등을 해왔으며,  
통일을 대비한 북한 학교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150명, 비록 적은 수이지만  
자신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 '교육' 과 '아이들' 을 중심에 두고  
학교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이 작은 움직임에 주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좋은교사운동 '후원회원' 이 되어, 재정적 후원과 함께 좋은교사운동의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사안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일대일결연기금> <북한학교돕기> 등 목적 사업에 재정을 후원하고 그지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www.goodteacher.org (사)좋은교사운동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68-1 3층 02) 876-4078,9 goodteacher2@komet.net

하나님 나라가 이땅위에

# 한국리더십학교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네트워크

Since 2001

한국리더십학교는

기독교 리더십을 개발하고,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확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2001년 3월 5일 개교하여, 1기부터 9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하고 크리스천 네트워크 구축을 소망하며 헌신한 학생들을 교육, 2009년 현재 36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 리더십 교육

목적  
예수그리스도의 서번트 리더십 연구, 교육, 전파  
하나님나라와 통일한국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 양성

활동  
한국리더십학교 교육 (1년 비학위과정)  
하나님 나라의 신학, 기초교육 -> 전문교육 -> field study -> 소그룹활동 -> 멘토링

## Kingdom Leadership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섬김

## Kingdom Community

목적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통한 사회 변혁

활동  
정부 - 미디어 - 교육 - 문화 - 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양성  
일터사도 파송 (Sending Apostles in the Workplace)

##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리더십 네트워크 사역에 협력

목적 / 하나님나라 구현과 통일한국 준비에 뜻을 함께하는 크리스천 공동체들과 협력시스템 구축  
활동 / K-community 사이의 유대관계 / 통일전문가 NETWORK 구축 / 크리스천 공동체 사이의 네트워크 사역

## Kingdom Network

이사장: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목사) | 학교장: 이장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www.leadershipkorea.org](http://www.leadershipkorea.org)

서울 성북구 종암1동 29-26 고려대 교육회관 307호 | T. 929-6898 | F. 927-8027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행복한 학생,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함께 합니다.

## II 학교사회복지란

“학교사회복지사가 해결합니다.”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
- 2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3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목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 ● 학교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 01 사례관리

복잡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학생에게 여러 가지 자원방법을 활용하고 학교 내외의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가 충족되도록 모든 서비스 과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실천 전문방법.

#### 02 개별개입

대면상담,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 심리검사, 정보제공

#### 03 집단개입

공통의 욕구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급단위로 예방교육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

#### 04 가정개입

가정방문 및 학부모 면담을 통한 상담, 학교와 가정간 연계 지원,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 05 지역사회 연계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밖 자원 개발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학교의 지역사회 봉사

#### 06 기타

실태조사, 욕구조사, 연구 및 자원봉사 활용 등.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개발, 보급, 실천을 통해 일반 청소년들과 학생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를 둘러싼 각종 병리현상들을 해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를 양성, 훈련하며 학교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활동 및 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homepage: <http://kassw.or.kr>  
 email : [kassw7942@hanmail.net](mailto:kassw7942@hanmail.net)  
 (143-70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강변현대하이엘 203호  
 TEL. 02) 2267-7942 FAX. 02)2267-7045



“한빛누리는 이 땅의 변혁가들을 함께 세워가는 전략발전소입니다.”

(재)한빛누리는 기독교신앙 위에 세워진 사회선교재단으로서  
기독교인들의 변화와 각성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하는  
전략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공익적이고 신뢰받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신력 있는 운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총지원사업

변혁적인 선교기관 및 운동단체들에게 차별화된 전략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독교민사회의 성숙과  
확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물적지원관리 컨설팅	인적지원관리 컨설팅
모금교육 및 모금시스템(Bright CMS) 지원 재정투명성운동 공동추진	사역공동체를 위한 그룹웨어(Bright Camp) 개발 보급 인사평가시스템 개발보급

#### 민족교류협력사업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형 인재교육과 교류협력사업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민족 IT 교육 프로젝트	북한주민 간접지원 프로젝트
시장 친화적 IT 아카데미 운영 남북 민간 IT 사업 교류 지원	전략적 조선족 교회 지원 나들목교회 Global Internship Program 연계

#### 유아교육사업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영유아교육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보급함과 동시에 지역교회  
와 연계된 현장 모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발굴 및 육체 프로젝트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연대 및 지원 프로젝트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연수 - 아플 어린이집 멤버십 보급	- 가족친화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 성경적인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 기독교 영유아교사네트워크 - 선교지 유아교육시설 지원 - 지역교회 영유아 사역 협력

#### 인재양성사업

성공과 권력 지향의 세속적 인재상에 대안이 되는 인재상을 세우고, 문화적 교육적 접근을 통해  
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 및 공동체 중심의 리더십 양성 프로젝트	변혁지향적 기독교교육 프로젝트
- 소명라이프빌더 제작 보급 - 시간시간경영법 개발 보급	- 기독교 교육도서관 및 아카데미 설립운영 지원 - 빈곤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프로젝트

#### 재단 본부

서울 성북구 보문동 7가 118  
서광빌딩 305호  
T. 02-924-0240  
F. 02-924-0243  
www.brightfund.org

#### 섬기는 이들

이 사 장 이영덕  
부이사장 김정철  
기획이사 김형국  
본 부 장 황병구

#### 협력 기관

개혁자들  
공의정치실천연대  
기독변호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들목가족도서관  
난민인권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더파운더스  
러빙핸즈  
바른교회아카데미  
복음과상황  
부흥한국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서한국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플어린이집  
여성목회연구소  
예수살기  
와우씨씨엠인터넷선교회  
인수장학회  
쥬이선교회  
청년목회자연합  
young2080  
청소년공부방 두드림  
평화한국  
함께가는사람들  
핸즈영유아연구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CHE선교회

☀️ 키,

# 우리들의 행복한 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현신된 대학생 교사들을  
학교와 교회에 파견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돌봄과 학습을 지원하는,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입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취약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씨앗학교를 운영합니다

- ① 학교, 교회에서 청소년에게 전인적 돌봄과 학습을 지원합니다.
- ② 학교, 교회, 기업, 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이  
최대한 네트워크 되도록 협력합니다.

대학생 교사를 양성합니다

- ① 체계적인 교사훈련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합니다.
- ② 리더십 개발, 청소년 이해, 멘토링 등 알찬 내용으로 훈련합니다.

씨앗학교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 대학생 자원봉사 교사모집

봉사기간 : 8월~12월 / 주 1~2회, 놀토 1회

☞ 일정

- 3~4월 : 씨앗학교 커리큘럼,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 4~5월 : 학교/교회 현장 개발
- 6~7월 : 교사-학생모집, 교육 토론회 개최
- 8월 : 교사훈련
- 9월 : 씨앗학교(시범모델) 개강



문의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지원팀 김양미 간사 (070-7019-3761, hopeseed@paran.com)




[hopeseed@paran.com](mailto:hopeseed@paran.com)

[www.hopeseed.kr](http://www.hopeseed.kr)



Recycled Paper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들의 행복한  
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

[www.hopeseed.kr](http://www.hopeseed.kr)